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7, No. 105, pp. 95-149
<https://doi.org/10.29212/mh.2017..105.9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김일성의 6.25전쟁 전략 분석: 전략의 전술화*

김태현**

1. 머리말
2. 이론적 고찰: 전략의 전술화
3. 김일성의 전술편향: 기원과 형성
4. 전쟁계획: 군사적 모험주의
5. 전쟁수행: 전략의 경직성
6. 결 론

1. 머리말

“전쟁에서는 모든 것이 매우 단순하다. 그러나 그 가장 단순한 것이 어렵다. 이 어려움이 누적되면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상상할 수 없는 마찰을 야기한다.”¹⁾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에서 계획과 현

*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김일성의 한국전쟁전략, 2012)을 정리, 보완한 글임을 밝힙니다.

**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부교수

1) Carl von Clausewitz, Edited and Translated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On War*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 119.

실과의 괴리를 이처럼 표현했다. 전쟁에서 계획과 실제와의 괴리는 전쟁이 과학(science)뿐만 아니라 술(art)의 영역임을 명확히 하는 증거이기도 하다.²⁾ 전쟁에서는 계획단계에서 과학적으로 예측하거나 정형화할 수 없는 많은 다양한 우발적 상황들로 인해 최초에 설정한 전쟁목표들이 실제에서는 기대하던 대로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전쟁지도자는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완전히 새로운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시련에 직면하게 된다. 클라우제비츠는 ‘종이 위의 전쟁(war on paper)’과 ‘현실전쟁(real war)’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을 ‘마찰(friction)’로 설명하였다.³⁾

전쟁의 마찰이 전쟁계획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전형적인 사례가 북한의 6.25전쟁 수행이다. 김일성은 1949년에 적어도 2번은 남침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김일성은 북한 정권 수립 직후부터 ‘혁명의 근거지’를 북한 지역에 공고히 축성하고 남한 내 ‘혁명세력’과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이승만 정권을 무력으로 전복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⁴⁾ 첫 번째는 1949년 3월로서 이때 이미 김일성은 ‘남한 내의 유격대와 인민의 지지’를 전제로 전면적 남침을 공식적으로 스탈린에게 제의하였다.⁵⁾ 두 번째는 1949년 8월 ‘국지전의 전면전화’의 전쟁구상으로 김일성은 인민군의 남침이 개시되면 “틀림없이 이승만 정권에 대항하는 인민봉기가 남반부에서 분출”하여 남한을 무너뜨릴 자신이 있다고 하였다.⁶⁾ 1950년 4월의 ‘3단계 공격’ 구상은 수정되어 실

2) Michael I. Handel, *Masters of War: Classical Strategic Thought* (London, Portland: Frank Cass, 2001), pp. 23-32.

3) Clausewitz, *On War*, p. 119.

4) 박병엽, 『전 노동당 고위간부가 겪은 건국비화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탄생』(서울: 선인, 2010), p. 141.

5) “김일성이 지휘하는 북한 정부대표단과 스탈린간의 대화록, 1949. 3. 7,”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바,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서울: 열림, 1997), pp. 27-28.

6) “슈티코프대사가 모스크바에 보낸 전문, 1949. 8. 12. 문서군2, 목록 65, 문서 775, pp. 102-105,” 허남성·이종판 역, 『한국전쟁의 진실: 기원, 과정, 종결』(서울: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2000), p. 45.

전에 적용되었는데, 그것이 1950년 6.25전쟁이었다. 김일성은 1950년 초부터 6.25 남침전쟁을 계획하면서 승리에 대해서 한 치의 의심도 없었다. 김일성은 1950년 4월 스탈린과의 전쟁모의과정에서 인민군의 남침이 개시되면 남한 내 유격대와 대규모 봉기가 전개되므로 ‘3일 이내’에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김일성은 ‘3일 이내’에 전쟁을 종결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미국은 개입할 준비시간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⁷⁾

김일성의 ‘머릿속의 전쟁’은 실제전쟁과 일치하지 않았다. 1950년 6월 25일 막상 개전하고 보니 남한의 인민봉기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기대했던 유격전도 북한인민군의 정규전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다. 짧은 기간에 전쟁을 종결하여 미군이 개입할 기회를 주지도 않겠다던 야심찬 계획도 허상에 불과했음이 증명되는데까지는 1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김일성은 종전 이후 전쟁패인을 분석하면서 자신이 기대했던 전쟁 계획이 실제전쟁과는 큰 괴리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는 1950년 12월 21일 당 중앙위 3차 전원회의에서 “우리는 많은 예비군을 준비하지 못하였으며 우리 앞에 중첩이 쌓여 있는 곤란들과 난관들을 극복하는 데 대한 타산과 준비가 부족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예비부대 준비부족, 조직성 미약, 규율성 취약, 유생역량 소멸 실패, 특수조건하 전투 부족, 유격전 실패, 후방공급사업의 결함, 정치공작 사업 부족 등 8개의 과오를 지적하였다.⁸⁾ 김일성은 “남조선에 당원이 20만은 고사하고 1,000명만이라도 있어서 부산쯤에서 파업을 하였더라면” 미군개입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⁹⁾ 김일성의 이러한 언급은 1950년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간 공격 전쟁 수행이 자신의 구상대

7) “전 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김일성의 소련방문(1950. 3. 30-4. 25)에 관한 보고, 러시아 대통령실 문서고,” 예프게니 바자노프, 앞의 책, p. 54.

8) 김일성, “현정세와 당면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김일성 선집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9) 김일성, “조선인민군 군정간부 회의에서 한 연설: 인민군대의 간부화와 군중, 병종의 발전 전망에 대하여, 1954. 12. 23,” 중앙정보부, 『김일성 군사논선』, p. 300.

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김일성이 전쟁의 마찰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전투처럼 수행하여 성급하게 개전하고자 했으며 그럼으로써 ‘예상치 못한’ 전쟁마찰에 직면하여 경직된 전쟁수행을 하게 되었던 현상을 ‘전술의 전략(strategy of tactics)’의 동학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50년 전쟁계획 수립 과정에서 북한지도부에 내재되었던 ‘전략수준의 부조화’ 현상은 군사적 모험주의와 성급한 개전을 촉진하고, 그것이 전쟁수행의 경직성을 유발함으로써 전쟁의 마찰에 제대로 대응 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북한의 6.25전쟁 수행과정 전반에 나타났던 전쟁의 마찰은 탁상전쟁과 실제전쟁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마찰 없이 움직이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관념상의 모든 과장과 허위는 전쟁에서 곧바로 나타났다.¹⁰⁾

본 논문에서 김일성의 6.25전쟁 수행 전략을 분석하는 기본적인 관점은 ‘전략의 전술화(tacticization of strategy)’의 개념이다. 전략의 전술화란 하위수준의 전술적 사고가 전략의 논리를 지배하는 경향을 말한다.¹¹⁾ 본 논문은 ‘전투처럼 전쟁을 수행하고자 했던’ 김일성의 전술 편향의 사고방식이 희망적 사고에 기초한 군사적 모험주의와 개전의 ‘오판’을 촉진시켰고, 그것이 전쟁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전쟁의 마찰을 충분히 계산하지 못하도록 한 결정적 요인이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전술이 전략을 대체할 시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적의 수단이 선택되기 보다는 단기적 전술적 목적, 전투의 승리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수단이 운용된다. 이에 따라 군사전략은 전쟁의 목적이 아닌 ‘전투에서 승리’에 집착하게 되고, 이것이 전쟁의 승리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김일성이 전격전을 통해 속승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과도한 믿음은 다른 모든 정치적, 전략적 고려요소들을 압도하고 전쟁을 전

10) 류계승, 『전쟁론』(서울: 책세상, 2008), p. 103.

11) Edward N. Luttwak, *Strategy: The Logic of War and Peace*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투로 단순화시켜 버렸다. 그럼으로써 북한 내에서는 국제정세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단순한 군사주의가 등장하게 되었고, 개전만 하면 전쟁이 자신의 뜻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가 형성되었으며, 이것이 결국 김일성의 적극적인 개전요구로 연결되었다. 본 논문은 ‘전격전의 신화’에 대한 단순한 군사적 사고가 군사적 모험주의를 부추겼고, 이것이 국제정세와 전쟁의 마찰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전쟁을 개전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을 규명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김일성이 단순히 ‘스탈린의 대리자’라는 전통주의적 관점은 달리 소련이라는 구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범위에서의 독자적 전략을 견지했던 것으로 간주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전쟁이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의 ‘3자 합작품’이라는 썬이(D. Tsui)의 견해, 그리고 소련의 대미 세계전략의 일부로서 규정되는 ‘스탈린의 전쟁’이라는 선즈화의 견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¹²⁾ 김일성은 대남 군사전략은 스탈린의 전면적인 개입과 승인 하에서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소극적인 현상유지적 리더십에 국한되지 않았었다. 김일성은 늦어도 1949년 이후부터 무력 적화통일에 대한 야심을 지속적으로 드러냈으며,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전략적 독자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¹³⁾ 김일성은 개전과정에서 적어도 ‘촉진자’역할을 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균형잡힌 관점 하에 한국전쟁 결심과정을 분석할 때 비로소 북한의 전쟁수행과 관련한 전략문제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

논문의 구성으로 2장에서는 사례분석을 위한 분석의 틀로서 ‘전략의

12) 데이빗 썬이, 『중국의 6.25전쟁 참전』(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 pp. 109-110.; 선즈화, “극동에서 소련의 전략적 이익보장: 한국전쟁의 기원과 스탈린의 정책결정 동기,” 『한국과 국제정치』제30권(2014), p. 30.

13) 가미야 후지, 『조선전쟁』(서울: 한반도 출판, 2004), p. 30. 가미야 후지는 “김일성이 리더를 잡은 형태로 실질적으로는 소련의 공동 결정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전술화' 모형을 제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3~5장에서는 김일성의 6.25 전쟁 수행 전략에 대한 사례분석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3장에서는 김일성의 전술 편향적 사고의 형성과정을 제시하며, 4장과 5장에서는 그러한 전술편향이 김일성의 전쟁계획과 전쟁수행간의 괴리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사례분석의 범위로써 전쟁계획단계는 1950년 초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를, 그리고 전쟁수행 단계는 1950년 6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를 다룬다. 특히 김일성의 전쟁수행 단계로 분석하는 3개월간(1950. 6. 25-9.15)의 기간은 김일성이 자신이 구상했던 전쟁계획을 공격작전으로 구현하는 국면으로서 '계획과 실시'의 문제점을 대비시켜 분석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전쟁을 통틀어 거의 유일하게 김일성이 제한적이거나 '자율성'을 가지고 전쟁을 지도했던 기간이기도 하다.

2. 이론적 고찰: 전략의 전술화

가. '전략의 전술화'의 개념

전쟁에서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많은 고민을 해왔다. 전략은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상위 용병술이다.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 전쟁이 폭력을 주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전략은 폭력을 사용하는 방법론을 주요 고민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전략과 전술의 위계에 있다. 전쟁에서 전략과 전술의 차이를 명확히 규정한 클라우제비츠에 따르면 전략은 '전쟁의 목적을 위한 전투의 운용', 그리고 전술은 '전투에서 전투력의 운용'이다.¹⁴⁾ 이 개념에 따르면 '군사적 승리'는 전술 수준에서는

14) Carl von Clausewitz, *On War*, p. 128. 전략의 개념에 대해서 다음을 참조:

고유한 '목적(ends)'이 되지만, 전략 수준에서는 하나의 '수단(means)'에 불과하다.¹⁵⁾ 전략은 전쟁목적에 부합된 하나의 목표를 전체 군사적 행동에 부여해야 하며, 전쟁의 본질적 속성인 정치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¹⁶⁾ 이러한 점에서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전략과 전술이라는 서로 다른 수준의 용병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만약 서로 다른 수준의 용병술이 각각의 수준에서 이탈하여 다른 수준에서 적용될 경우 전쟁수행은 기대하던 목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진다.¹⁷⁾

전략과 전술의 경계는 특정 군사적 행위가 '전쟁목표' 또는 '전쟁 전체국면'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는가에 있다. 전투력을 투사하는 시간, 공간 등의 범위에 따라서 전략과 전술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대체적인 경향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본질적 차이를 밝히지 못한다. 오로지 '전쟁 목표'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느냐에 따라 전략과 전술의 경계가 비로소 명확해질 수 있다. 전쟁 전체국면에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전략이 되겠지만,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전술에 국한되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규모가 큰 전투는 전쟁 전체국면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무리 소규모의 전투라도 '전쟁 전체 국면'과 '전쟁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전략적 국면이 될 수도 있다.

전쟁 전체국면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정치'이다. 정치가 전쟁

Liddell Hart B. H., *Strategy* (New Frederick A. Praeger, 1967), pp. 333-335.; Andre Beafre, trans. by. R. H. Barry, *An Introduction to Strateg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5), pp. 21-23.

15) Carl von Clausewitz, *On War*, p. 143.

16) Carl von Clausewitz, *On War*, p. 142.; 마오쩌둥도 전략이란 전체국면(as a whole)으로서 전쟁을 지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Peng Guanqian, *The Science of Military Strategy* (Beijing: Military Science Publishing House, 2005), pp. 104-105.

17) Richard K., Betts, "Is Strategy an Illus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25, No. 2 (Autumn, 2000), p. 6.

목표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정치는 전쟁을 일으키는 동기이자, 전쟁을 수단으로 정치목표를 달성하는 전쟁수행 동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목표를 부여하는 정치만이 용병술의 수준을 결정하고, 그 용병술마다 각각의 의미와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정치와 보다 근접해 있는 것이 전략이라면, 순수한 군사적 영역에 밀접하게 연계된 것이 전술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을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고 규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략은 전쟁목표 달성을 위해 “최상의 군사적 결과”가 “국제체제”와 어떻게 관계되고 다양한 상황들이 어디에서 전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시한다. 만약 국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군사력의 역할과 기능’만 중시하는 전략가가 있다면, 이들은 국제관계에서 힘의 역학관계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성급하게 ‘개전’하려 하며, 그 이후에 전개되는 국제정치의 후폭풍은 그저 ‘우연’에 맡겨 놓으려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것은 주로 현실정치(realpolitik)로 표현되는 ‘강대국 정치’의 ‘큰 그림’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이익에 집착할 경향이 있는 ‘약소국의 지도자’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특성이다.

전략과 전술의 엄연한 차이를 고려할 때 ‘전략의 전술화(tacticization of strategy)’란 전쟁에서의 전략을 규정하면서 하위수준의 작전적 사고에 편향된 경향을 말한다. 전략의 전술화는 하카비(Y. Harkabi)가 이스라엘의 대중동 전략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사용한 개념으로써,¹⁸⁾ 하카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략가들은 전통적으로 명확한 장기적인 전략적 구상 없이 작전 지향적으로 행동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스라엘 지도부가 군사지향적인 사고로 국가의 안보전략을 결정했기 때문에 전략 범위를 ‘군사작전’으로 축소시켰다고 평가했다.¹⁹⁾ 이처럼, 전략의

18) Yehoshafat Harkabi, *Israel's Fateful Decision* (London: I. B. Tauris and Company Ltd., 1988).

19) Michael I. Handel, “The Evolution of Israeli Strategy: The Psychology of

전술화는 ‘순수한 군사작전’의 논리가 전략의 논리를 결정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마치 전투처럼 전쟁을 수행하는 현상”을 의미한다.²⁰⁾ 전략의 전술화는 전술적 수준의 사고 작용이 전쟁전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군사의 꼬리가 정치 전략적 몸통을 뒤흔드는 것(military tail wagging the political-strategic dog)”에 비유된다.²¹⁾ 이에 대해서 크레피네비치(A. Krepinevich)가 고도의 정군배합(政軍配合)으로 수행되는 베트남전에서 군사수단으로만 전쟁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던 미국 군사전략을 “전술의 전략(a strategy of tactics)”이라고 규정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²²⁾ 전략은 개별전투의 성공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의 성공을 확대 재생산하고, 그로써 쟁취된 전술적 승리를 새롭게 전개되는 국면에 적용시키는 역할을 한다.²³⁾ 따라서, 전쟁을 전투처럼 수행한다는 것은 ‘전투’의 정치적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가 없이 ‘전쟁’을 마치 한 번의 전투로 종결될 수 있다는 착각으로 단순화시킬 우려가 있다. 현실세계에는 그러한 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²⁴⁾

나. ‘전략의 전술화’ 발생 요인

전략과 전술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전쟁지도자는 ‘전술적 경직성’을 ‘전략적 유동성’에 적용하려 한다. 전략과 전술은 시공간

Insurgency and the quest for absolute security,” Williamson Murray, MacGregor Know and Alvin Bernstein, Eds., *The Making of Strategy: Rulers, States and War* (The Press Syndicate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1994), p. 570.

20) Yehoshafat Harkabi, *Israel's Fateful Decision*, p. 16.

21) Michael I. Handel, *Masters of War*, p. 355.

22) Andrew Krepinevich, *The Army and Vietnam*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23) 권터 블루멘트리트 지음, 류제승 옮김, 『전략과 전술』(서울: 한울아카데미, 1994), p. 24.

24) Carl v. Clausewitz, *On War*.

적으로 서로 삼투하지만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활동이다. 양자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양자의 내적 법칙과 상호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다. 물질적 요인에 의해 지배를 받는 전술영역에서는 난점은 적지만, 주로 정신적 요인에 의해 지배되는 전략영역에서는 훨씬 더 난점이 증가한다. 전술은 단지 물질적인 요인에 제한된 영역인 반면 전략은 ‘평화’와 직결되는 목적을 추구하며 불확실한 가능성의 영역으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다.²⁵⁾ 이 때문에 전략에서 모든 것은 단순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쉽지는 않다. 따라서 전략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일정한 체계로 정형화하는 시도라든가, 아니면 어떤 교리를 특정 전략가의 독자적인 교리라고 끼워 맞추는 식의 우를 범하면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전략은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하기 때문에 ‘교리’에 집착하는 경직된 사고는 전쟁실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²⁶⁾

전쟁계획과 수행에서 전략의 전술화 현상이 벌어지는 근본 요인은 전쟁지도자의 전술 편향에 있다. 이러한 전술편향의 첫 번째 요인은 전쟁 지도자의 ‘경험(experience)’이 상이한 수준의 용병술에서 잘못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한다.²⁷⁾ 전쟁지도자가 특정 수준의 과거 경험을 다른 수준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자신이 인지도 못한 채 계획과 실행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전쟁지도자의 전술적 수준의 경험이 전술적 수준에서는 잘 작동될지 모르나, 전략적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 기대치 않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지도자가 전술적 수준에서 성취한 자신의 성공경험에 집착한다면 작은 이점에도 쉽게 현혹될 수 있다.²⁸⁾ 이러한 전술편향의 전형적인 형태는 ‘속승에 대한 과신’으로 나타난다. 신속결전으로 전쟁종결이 가능하다는 낙관적 인식은 전술적 사고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전쟁지도자가 적을 신속하게 격멸

25) 류제승, 앞의 책, p. 129.

26) 쿤터 블루멘트리트 지음, 앞의 책, p. 34.

27) Michael I. Handel, *Masters of War*, p. 46.

28) Michael I. Handel, *Masters of War*, pp. 354-358.

하거나, 점령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편협한 군사중심의 사고로 변질될 수 있다. 시간, 공간, 전투력을 운용함에 있어 전술편향에 사로잡힌 지도자는 주로 “단기간, 협소한 공간, 소규모 병력”을 다루는데 익숙해있다. 이것이 “장기간, 광범위한 공간, 대규모 병력”으로 확장되는 전략적 국면에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단순한 접근이 전쟁전체 국면에 관여되는 전략의 의미를 간파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전술편향의 두 번째 요인은 적의 중심(center of gravity)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한다. 클라우제비츠에 따르면 중심은 ‘무게가 가장 밀도 높게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이 응집력 있는 지점에 대해 모든 전투력의 타격력이 집중되어야 전쟁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²⁹⁾ 적이 중심에 타격을 받아 균형을 잃는다면 균형을 회복할 시간을 허용해서 안 되며, “연속 타격”으로 항상 같은 방향으로 중심의 균형을 무너뜨려야 한다. 중심타격이 일회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경험 없는 군사가들은 ‘일회의 중심타격’으로 전쟁이 종결될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중심식별이 전략문제에서 중요한 첫걸음임에는 분명하지만, 중심의 균형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전투력과 소요시간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한 변수이다.³⁰⁾ 이 두 가지를 계산하지 않고 ‘일회 타격’만 생각하고 전쟁승리를 자만했다면 그 영향은 현실전쟁에서 가혹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군사적 수준에서는 대부대의 연속타격을, 그리고 정치적 수준에서는 국제관계와 연계된 정치적 파급효과와 군사력의 정치적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중심을 잘 식별했다 하더라도 중심을 허물지 못하는 것이다.

29) 류제승, 앞의 책, p. 320.; p. 395. 공략 가능한 중심으로서, 내분을 겪는 국가의 중심은 ‘수도’이고, 강대국에 의존하는 약소국의 중심은 ‘후원국의 군대’이며, 동맹의 중심은 ‘공동이익’이며, 그리고 국민무장군의 중심은 ‘최고지도자의 인격과 여론’으로 제시하였다.

30) 류제승, 앞의 책, p. 399.

마지막으로, 앞의 두 가지 요인이 전쟁지도자의 ‘휴브리스(Hubris)’와 결합되면 전술편향은 더욱 증폭된다. 휴브리스-네메시스 콤플렉스(Hubris-Nemesis-Complex)는 전술적 수준의 성과에 대한 지도자의 과신이 전략적 수준에서 통할 수 있다고 믿는 일종의 ‘성공 과신’의 심리현상이다.³¹⁾ 휴브리스-네메시스 콤플렉스는 자아도취적 경향에 젖은 오만한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콤플렉스에 빠진 지도자들은 자기 능력에 대해 지나친 확신과 교만으로 이에 반발하는 집단에 대한 격렬한 복수를 자행한다. 론펠트(D. Ronfeldt)에 따르면 위기에 처한 국가는 ‘힘 있는 지도자’가 있기 마련인데, 이들은 자신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권위를 넘어설 수 없고, 권력욕구가 커서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바로 이러한 지도자의 지나친 오만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토인비에 따르면 휴브리스는 역사를 바꾸는 데 성공한 창조적 소수가 그 성공으로 교만해지고, 추종자들에게 복종만을 요구하며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 지적, 도덕적 균형을 상실하고 불가능에 대한 판단력까지 상실하는 현상을 말한다.³²⁾ 그럼으로써 권력을 잡은 창조적 소수는 자신들의 성공방식을 절대적 진리인양 이상화하여 실패하거나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다. 영향: ‘전쟁계획의 모험주의’와 ‘전쟁수행의 경직성’

전략의 전술화는 전쟁계획과 전쟁수행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정치의 수단이 되는 전쟁이 정치가 부여한 목적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전술의 논리에 집중함으로써 지도자가 전쟁의 총체적인 요소가 합목적으로 운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술이 전략을 대체하

31) David Ronfeldt, *Beware the Hubris-Nemesis Complex: A Concept for Leadership Analysis* (RAND, 1994), pp. 5-9.

32) 윤석철, 『경영학의 진리체계』(서울: 경문사, 2002).

게 될 경우 군사와 정치 간의 관계를 혼란스럽게 하며, 또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목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전술적인 성공은 역량의 ‘낭비’와 ‘소모’를 초래한다.³³⁾ 전략의 전술화로 인해 정치적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군사 목표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거나 실행 불가능한 군사 목표를 상정한 전쟁계획은 전술과 전략의 연계가 깨어져 실패한다.³⁴⁾

전략의 전술화의 심각성에 대해 마오쩌둥과 클라우제비츠는 엄중히 경고하였다. 마오쩌둥은 전략을 ‘전쟁의 전반적 법칙’, 전술을 ‘국부적인 전쟁지도’에 관한 영역이라고 규정하면서 용병술의 상하관계를 명확히 하였다.³⁵⁾ 그러면서 “전략적 승리가 전술적 승리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견해는 그릇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견해는 전쟁의 승패에 있어서 주요하고도 선차적인 문제가 전체국면 및 각 단계를 잘 고려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전체 국면이나 각 단계에 대한 고려에 중대한 결함이나 오류가 있다면 그 전쟁은 꼭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였다.³⁶⁾ 클라우제비츠도 “중대한 군사적 사건 또는 군사계획이 순수하게 군사적 관점에 관한 문제여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전쟁에 필요한 어떤 기본계획도 정치적 요인을 무시하고 수립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였다.³⁷⁾

전략의 전술화는 전쟁전략 수립과정에서부터 전쟁수행 등 전반적인 전쟁지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 부작용은 군사적 모험주

33) Colin S. Gray, “Irregular enemies at the essence of strategy: Can the American way of war adapt?,” <http://www.strategicstudiesinstitute.army.mil/pubs/display.cfm?pubid=650>

34) Richard K., Betts, “Is Strategy an Illusion?,” p. 7.

35) 모택동, “중국혁명전쟁의 전략문제,” 김정계 역, 『모택동의 군사전략』(대구: 중문, 1994), p. 70.

36) 모택동, 위의 책, p. 71.

37) Carl von Clausewitz, *On War*, p. 607.

의이다. 속승에 대한 맹신은 다른 모든 정치적, 전략적 고려요소들을 압도한다. 기동과 속도를 과도하게 신뢰하여 군사적 승리를 확신하는 것은 ‘복잡한 전쟁’을 ‘단순한 전투’로 만들어 버린다. 이러한 모험주의적 경향은 중심을 설정하는 데에도 혼돈을 야기하며, 개전에 대한 성급한 또는 과도한 욕구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 신중한 고려와 계산 없이 단순한 희망적 사고에 집착한 계획수립이 이루어질 경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쟁지도자는 상대 정부와 군의 사기를 꺾어버리고 그들의 군사적 무능력을 단시간에 대중에게 폭로시키며, 전쟁의 승리를 신속히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하기 위해 상대방의 심리적 중심을 공격하려고 한다. 이러한 속승의 열정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단순한 방법은 상대 국가의 ‘수도’를 점령하는 것이다.³⁸⁾ 문제는 수도점령이라는 ‘전술적 승리’를 어떻게 전략적 승리로 연결시키는가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적 차원에서 연속타격에 의한 중심의 균형 와해, 그리고 정치적 차원에서 군사 공격으로 인해 파생되는 국제관계상의 ‘적과 동지’의 구도 변화와 국제적 개입과 관여의 후폭풍의 동학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그 전략이 속승의 열정에 편향된 단순한 일차적 공세에 집착하는 군사작전에 치우쳐 있다면, 전투에서의 승리를 전쟁 목적에 맞게 변화시키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

두 번째 부작용은 전쟁계획과 수행의 경직화에 있다. 전략의 전술화로 인해 전술적 국면에 집착하면서 전체전쟁 국면에 대한 안목이 상실되면서 전쟁수행에 있어 경직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전쟁의 마찰에 대해 상상하지도 못하고 모든 ‘머릿속의 전쟁’이 현실전쟁에서도 실행될 거라는 생각은 허구이자 착각이다. 역사적으로 그러한 전쟁은 없었다. 모든 전쟁은 예상치 못한 마찰과 전쟁지도자간의 끈질긴 투쟁의 연속이었다. 이 때문에 동서고금을 통틀어 ‘첫 총성이 울리면 모든 계획은 종잇조각으로 변한다’는 말이 사실처럼 회자되어 왔다. 따라서 전

38) Clausewitz, *On War*, p. 619, p. 596.

략은 복잡한 대내외 환경에 대한 수많은 가정을 기초로 짜여 진다. 그 가정 사항들은 현실적인 근거로부터 추론해야 한다. 만약 가정들이 현실에서 멀어질수록 전쟁의 마찰은 커지며, 이로써 전쟁은 도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전쟁이론은 전쟁의 마찰, 불확실성 등 다양한 우발적 상황에 대한 ‘예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비 병력, 예비 물자, 예비 계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의 마찰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마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지면 새로운 상황에 심리적으로 마비되어 전쟁수행의 유연성과 융통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든다.

3. 김일성의 전술편향: 기원과 형성

가. 김일성의 만주 유격전 경험과 자신감

김일성의 1930년대 만주 항일무장투쟁 경험은 ‘사실’보다 ‘신화’로서 북한 군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30년대 중국인과의 연합부대인 동북항일연군에서 주로 활동했던 김일성의 유격전 경험을 북한은 ‘혁명전쟁’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혁명전쟁을 “비정부 집단과 정부간의 투쟁”으로 정의할 때, 김일성의 유격전을 ‘전쟁’ 수준으로 볼 수 있는가는 의심이 된다. 전쟁은 ‘두 개 조직적인 정치집단간의 폭력적 상호작용’으로서 정치의 수단으로서 개전이 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지의 대결이다.³⁹⁾ 이에 반해 ‘전(戰, warfare)’은 특정 군사력, 전술, 무기를 수반하는 군사적 행위로서 전쟁을 구성하는 수많은 폭력의 한 형태이다. 이렇게 볼 때 김일성의 유격전경험은 혁명전쟁을

39) Samuel P. Huntington, “Guerrilla Warfare: Theory and Policy,” Franklin Mark Osanka, *Modern Guerrilla Warfare: Fighting Communist Guerrilla Movements 1941-1961* (The Free Press of Glencoe, 1962), p. xvi.

구성하는 투쟁, 파업, 태업, 그리고 테러리즘, 정규전 등의 다양한 투쟁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

김일성의 1930년대 만주유격대 경험은 전쟁수준의 전략과는 거리가 멀다. 김일성은 1930년대 장백산 일대에서 유격대 지휘관이었다. 김일성은 ‘사장’, ‘방면군사령관’ 등의 직함으로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병력을 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그가 속한 중국-조선인 동북항일연군은 게릴라 부대였으며, 이 부대의 기본 투쟁방침은 ‘치고 빠지는(hit and run)’식의 유격전이었다.⁴⁰⁾ 김일성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도적 위치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한 것은 아니며, 중국공산당의 일원으로 중공의 지도원칙에 철저히 종속되어 부대를 지휘해야 했다.⁴¹⁾ 김일성의 유격대 경험은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수행되었고, 정치적, 전략적 판단은 중국공산당의 몫이었다. 김일성은 주어진 전략방침에 따라 ‘전투’를 수행했을 뿐이다.

김일성의 유격전은 ‘속도’를 기본으로 기습타격과 도주를 반복하는 전형적인 게릴라전법이었다. 당시 김일성이 속했던 동북항일연군의 중국군 지휘관 저우바오중에 따르면 항일연군의 전략전술은 강한 적을 피하고 약한 적을 치며 기회를 타서 적을 타격하는 것이었다고 술회하였다.⁴²⁾ 그러면서 “적들이 분산되고 피로해진 후에 재빨리 역량을 집중하여 적의 약한 고리를 친 후 다시 재빨리 분산하였다. 이것은 전략적 문제에 있어서의 항일련군의 일반적인 지도사상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김일성도 “우리는 경편한 무장을 갖추고 영활하게 기동하면서 집중된 적을 분산시키고 분산된 적은 각개 격파하면서 큰 적은 피하고 작은 적은 먹어치우는 방법으로” 유격전을 진행하였다고 평가하였다.⁴³⁾ 북

40)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346.

41) 우병국 외, 『북한체제 형성과 발전과정 문헌자료: 중국, 미국, 일본』(서울: 선인, 2006).

42) 권오근 책임편집, 『주보중문선』(연변인민출판사, 1987), p. 189.

43)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309-310.

한이 선전하는 보천보 전투도 이러한 유격전의 하나였다. 보천보 전투는 1937년 김일성이 일본치하에 있던 보천보를 습격하여 조국광복회 청년 80여명과 함께 주재소의 무기를 탈취하고, 현금과 물자를 탈취했던 습격작전을 말한다. 여기서 일본 해산진서는 31명의 병력을 파견하여 김일성 부대의 퇴로를 차단하려 시도하였으나, 압록강 근처에서 김일성부대와 교전하여 전사 7명의 피해를 입었다.⁴⁴⁾ 김일성은 보천보 전투에 대해서 “보천보 전투는 대포도 비행기도 땅크도 없이 진행한 조그마한 싸움이었다. 보총과 기관총에 선동 연설이 배합된 평범한 습격 전투였다. 사상자도 많지 않았다. 우리 측으로 볼 때에도 전사자는 없었다”라고 인정하면서,⁴⁵⁾ “그 의의는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는 신념을 북돋아 준데 있다”라고 주장하였다.⁴⁶⁾

북한이 김일성의 유격전을 억지로 ‘혁명전쟁’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과잉해석이다. 실제 김일성은 전략적으로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독자적으로 부대를 지휘할 권한도 없었다. 그는 오로지 주어진 전략지침을 수행하는 ‘전술 지휘관’이었을 뿐이다. 유격대 지휘관 김일성의 유격전 경험은 ‘적의 약점’을 신속하게 타격하고, 도주하는 ‘단순한 전투’의 반복이었다. 특히, 1937년 보천보전투는 일회성 ‘게릴라식 습격’이었을 뿐 그 이후의 항일무장활동과 연계성 있는 군사 활동이 없었다. 여기에는 ‘적의 중심’을 균형이 무너지기 때까지 타격한다는 어떤 전략적 구상도 없었을 뿐더러 연속타격에 소모되는 충분한 역량도 없었다. ‘중심’ 타격에 근접한 어떤 군사적 성과도 없었다. 급기야 1937년 이후 김일성 유격대는 오히려 위축되었고 1940년 이후 일본군에 일망타진되어 소련으로 도피할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적의 중심을 허물기 위한 전체 국면의 전쟁수행은 김일성의 몫이 아니었다. 그는 중

44)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서울: 청계연구소, 1989), p. 32.

45)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145.

46) 김일성, “보천보 전투 30주년, 1968,” 『북괴 군사전략자료집』(서울: 중앙정보부, 1974), p. 23.

국 ‘혁명전쟁’ 지도방침에 철저히 종속되어 소부대를 지휘하는 전술적 계릴라지휘관에 머물렀다. 중국 혁명전쟁에서 ‘정치’만 제거한다면 그것은 유격전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전투에 불과하다는 마오쩌둥의 언급이 김일성의 전술적 위상을 증명한다.⁴⁷⁾

나. 해방 이후 김일성의 ‘유격대 신화’와 ‘휴브리스’

김일성은 자신의 군사적 성과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유격대 지휘관 김일성에 대한 소문은 대체로 후한 편이다. 김일성의 상관이었던 저우바오중에 따르면 동만주 일대에서 김일성만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⁴⁸⁾ 1937년 보천보 전투는 일제치하에서 벌어진 국내진공 무장투쟁이었기 때문에 국내 여론에서도 많이 알려졌다.⁴⁹⁾ 일본통치가 심했던 간도일대에서는 김일성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동정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며, 북한지역에서는 어린 아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다.⁵⁰⁾ 김일성은 1940년 이후 소련으로 도피한 후 소련도피 시절 소련군 교관에 의하면 김일성이 “종종 만주에서의 전투에서 자신이 세운 공적들에 대한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했다”고 한다.⁵¹⁾

군사적 자신감은 1945년 해방 이후 김일성의 북한지역 권력 장악과 동시에 항일경력 우상화작업과 결합되었다. 김일성의 만주항일무장투쟁은 해방 이후 권력 장악 과정에서 대중적 지지를 결집시키는 좋은 정치선전의 주제였다. 소련군정은 1946년 7월 김일성을 사실상 북한지도자로 공식화한 이래 김일성 우상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만주유격대 경

47) Colin S. Gray, *Modern Strate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 292.

48) 신주백, 『김일성의 만주항일유격운동』, p. 66. 각주 114번.

49) 김학준, 『북한의 역사: 제1권』(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p. 365.

50) 정현수 외, 『중국조선족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서울: 선인, 2006), pp. 165-166.

51) 김학준, 앞의 책, p. 475.

력을 전면에 부각시켰다.⁵²⁾ 김일성 우상화 과정에서 이미 1947년 8월 15일 한재덕은 ‘김일성 장군 개선기’의 선전 책자를 발간하고 김일성의 유격대활동을 과대선전하기 시작했다.⁵³⁾ 이러한 우상화 작업은 1946년 3월 단행된 토지개혁의 성과와 더불어 찬양수준으로 격상되었다.⁵⁴⁾ 권력 장악을 위해 조작화된 소문은 점차 ‘위대한 김일성 장군’ 또는 ‘천재적인 군사전략가’로 둔갑되었고, 나아가 ‘김일성 신화’로 체계화되어 굳어졌다.

김일성의 유격대 신화는 북한군 창설과정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해방 이후 김일성의 우선 목표는 ‘김일성 군대’를 만드는 데 있었다. 김일성은 1945년 9월 19일 원산으로 입북하자마자 평양학원을 창설하고, 평양학원을 통해서 ‘김일성 투쟁사’를 중심으로 한 이념적 통일을 유도하는 한편, 소련군의 정규군 군사교리를 채택하였다.⁵⁵⁾ 북한군은 소련군 군사체제와 장비를 이식받았지만, 인적 구성에 있어서는 연안파와 소련파 출신들을 핵심요직에서 배제하고 철저하게 만주유격대 출신으로 충원시켰다. 이들은 사실상 소련군 체제로 건설되는 정규군에 대한 운용능력이 떨어지는 인물로서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척도로 등용된 인사들이었다. 그러면서도 실무진에는 소련파 출신 군인들을 보직시키는 이중 구도로 군을 건설했다. 이것은 인민군이 소련군 전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게 되고, 전략적 판단에 있어서는 “유격대식 사고방식”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한다.

유격전 편향의 군부집단은 ‘속도전’에 관심을 두었다. 인민군은 창설 초기부터 신속한 기동력과 화력을 통합한 기계화 부대의 충격력을 이용하여 상대의 심리적 마비를 달성함으로써 포위 섬멸하는 소련군의 전격전을 군사교리의 기본지침으로 삼았다. 이들의 ‘속도’에 대한 욕구

52) 김주철, 『조선로동당 당원조직 연구: 1945-1960』(서울: 선인, 2008), p. 49.

53) 한재덕, “김일성장군 개선기,” 『북한관계사료집7』(서울: 군사편찬위원회, 1991).

54) 오영진, 『하나의 증언: 소련군정하의 북한』(부산: 중앙문화사, 1952), p. 131.

55) 장준의, 『북한 인민군대사』(서울: 한국발전연구원, 1991), pp. 48-49.

를 충족시킬 수단은 기계화 부대였다. 김일성은 1948년 2월 조선인민군을 공식 창설하고 그해 12월 소련군 철수시 잔류시킨 T-34 전차 60대 등을 인수하여 제115전차연대를 창설하였다. 또한 민족보위성과 인민군 각 사단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스탈린그라드, 레닌그라드 전투에 참전했었던 한인출신 소련군 약 2,500명을 배치하여 조선인민군을 소련의 전격전식 전술을 구현하는 데 노력을 집중했다.⁵⁶⁾ 1949년 1월에는 슈티코프를 단장으로 하는 군사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하여 인민군 현대화를 지원했다. 소련군측 지원인력은 4,293명이 북한에 잔류하였는데, 이들은 1950년 6월 25일까지 북한에 주둔하며 인민군의 교육훈련을 담당했다.⁵⁷⁾ 이것은 김일성에게 군사적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김일성의 ‘유격대 신화’와 ‘김일성 군대’의 결합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성공신화를 재현할 수 있겠다는 김일성의 휴브리스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만주빨치산과의 군권장악과 소련 정규군의 결합은 북한의 모험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했다. 김일성은 자신과 연배가 비슷한 30대 중후반의 동료들을 군 요직에 배치하였는데, 이들은 정규군에 대해 전혀 접해보지 못하였으며 소규모 게릴라전 경험만 가지고 있는 패기 넘치는 집단이었다. 이들은 해방 이후 소련으로부터 전차, 야포, 항공기와 같은 당대 ‘최첨단’ 무기체계를 이양 받아 군사적 ‘오만함’을 부릴 가능성이 커졌다. 두 번째는 김일성의 성공신화 입증에 대한 강박관념이다. 신화의 주인공인 김일성은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신화가 강조될수록 성공신화를 현실세계에서 입증해보여야 하는 김일성의 ‘강박관념’은 더욱 컸을 법하다. 김일성 일파는 신화조작 과정에서 스스로 ‘허위’와 ‘착각’의 늪에서 헤어날 수

56) Kyril Kalinov, “How Russia Built The North Korean Army,” *The Reporter* (September 26, 1950), p. 62.

57) 올레그 O, 벨로스루트제프(러시아연방 국방부 군사사연구소 대령), “소련 군인의 6·25전쟁참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연구경향 및 사료해제』(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9), p. 263.

없었다. 그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자극하여 성급한 군사주의를 부추기는 동인이 될 만 했다. 1948년 말 김일성은 한국을 향해 “한줌도 안 되는” 또는 “하룻강아지”라고 허세를 부린 것은 이러한 ‘오만’과 ‘강박’이 작동한 결과로 보인다.⁵⁸⁾

다. 중심타격의 몰이해: 개전의 조바심과 군사적 야심

김일성은 1949년 3월부터 남침에 대한 조바심을 드러냈다. 김일성의 무력통일에 대한 조바심은 대내외 정세로부터 자극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1948년 4.3사건 이후 여순 반란과 유격전으로 인한 남한의 불안정 사태, 1949년 전반기 주한미군의 철수, 모택동의 국공내전 승리, 북한군의 급속한 전력증강 등 일련의 상황이 북한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무력통일 가능성을 저울질 하였다. 1948년 10월 이후 남한지역은 여순반란사건과 그 이후 전개되는 유격대 소탕작전으로 인해 불안정하였다. 1948년 10월 이후 지리산으로 도피한 유격대는 남한 지역에 5개 전구를 형성하여 유격전을 진행하였으며 1949년 초에는 약 3500-6000명으로 불어났다.⁵⁹⁾ 이 혼란을 틈타 북한은 1948년 11월부터 인민유격대를 남파하기 시작하였다.⁶⁰⁾ 1948년 10월 말부터 여순반란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남한군은 정규군을 분리 운용해야 했으며, 유격대 토벌을 위해 부대를 재배치하여 38선의 병력배치가 취약해졌다.

1949년 전반기는 미군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국제정세는 북한에게 낙관적인 신호를 주었다. 1949년 6월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하자 김일성은 철수하던 미군이 한반도에

58) 김일성, “1949년을 맞이하면서 전국 인민에게 보내는 신년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순간통신』(1949년 1월 상순호, 8호).

59) 최장집, “해방8년사의 총체적 인식,” 최장집 저, 『해방 전후사의 인식4』(서울: 한길사, 1989), pp. 28-29.

6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45-1960』(서울: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8), p. 111.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듯하다. 여기에는 복잡한 상황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결정적으로 중국대륙의 국공내전 상황이 김일성에게 영향을 준 듯하다. 1949년 1월 양자강을 경계로 국민당군과 공산당군이 대치하자 북한은 양자강을 남북한의 38선으로 인식하는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중공군이 양자강을 도하하여 국민당군을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군의 개입이 없는 점에 주목하여 김일성은 “미제국주의자들은 장개석에 대한 원조를 끝까지 계속한다고 호언장담하던 것도 오늘에 와서는 어찌하여 그 논조가 좀 식어지는 모양”이라며 정세변화에 도취되었다.⁶¹⁾ 김일성에게 38선은 ‘제2의 양자강’으로 인식되었음직하다.

이러한 대내외 정세에 자극받은 김일성은 군사적 야심을 드러냈다. 그것은 사려 깊은 전쟁지도자의 전쟁전략이라기 보다 단순한 군사적 모험주의의 태도로 인식되었다. 1949년 한 해 동안 김일성은 스탈린으로부터 개전을 승인받는 데 주안을 둔 반면 전쟁수행 전략에 대해서는 공감을 얻지 못했다. 그때 마다 스탈린은 김일성의 ‘모험주의’를 경계하며 개전을 거절했다. 모험주의는 다른 표현으로 무전략에 근접한 개념이었다. 김일성은 6.25전쟁 개전 15개월 전인 1949년 3월 모스크바로 가서 스탈린과 전쟁모의에 착수했는데 이 자리에서 스탈린에게 ‘최선의 기회’가 왔으며, 북한군이 강력하며 남한 내 유격전의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군사적 ‘해방’작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⁶²⁾ 김일성의 이러한 주장은 남한의 불안정을 촉발시켜 일거에 한국정부를 붕괴시키고 그것으로 미군의 개입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개입명분을 없앨 수 있을 거라는 ‘단순한’ 생각에 기반 한 것으로 보인다. 스탈린은 김일성의 남침 제안을 거절하면서 한국으로부터 먼저 도발을 유도한 뒤 북한이 반격을 감행한다는 ‘반공격전’ 구상을 제시하였다.⁶³⁾ 김일성은 신속결전으

61) 김일성, “조선 최고인민회의 제2차 회의에서 진술한 김일성 수상의 총결 연설,” 『인민』 제4권 2호(1949. 2).

62) 예프게니 바자노프, 앞의 책, pp. 27-28.

63) 정병준, “북한의 한국전쟁 계획수립과 소련의 역할,” 『역사와 현실』 제66호(2007), p. 371.

로 미군의 개입가능성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단순한 ‘속승 편향’의 군사 계획을 제의하였으나 스탈린은 거절했던 것이다.

1949년 8월 이후에도 김일성은 전쟁수행 보다는 ‘개전’ 그 자체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소련을 설득하는 문제도 문제였지만 개전만 하면 전쟁수행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군사적 자신감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 1949년 6월 29일 주한미군의 철수와 함께 7-8월 북한군 전력의 급격하게 증강되었다. 1949년 7월 북만주에 있던 제4야전군 소속 중국 인민해방군 제166사단과 제164사단이 북한으로 입북하여 북한 인민군 제6사단과 제5사단으로 각각 편제되었다.⁶⁴⁾ 이로써 1949년 8월 인민군은 5개 보병사단, 1개 보병여단, 1개 기계화여단 등 총 8만 명 수준의 병력을 보유하게 되었고,⁶⁵⁾ 남한에 대한 군사력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숙련된 전투 병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군사력 증강에 힘입어 1948년 8월 이 되자 김일성은 ‘국지전의 전면전화’ 구상을 소련에 제의하였다. 김일성은 스탈린이 선제공격을 승인하지 않자 남한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위장된 명분을 내세워 옹진을 선제공격하여 점령한 후, 사정이 허락되면 전면전화하겠다는 복안을 제안하였다.⁶⁶⁾ 김일성은 옹진반도를 점령하게 되면 38선 상의 육상접경선이 120km나 단축되며, 옹진반도는 차후 작전을 위한 거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⁶⁷⁾ 김일성은 9월 3일 옹진반도 및 남한

64) 김경일,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서울: 논형, 2005), p. 229.

65) “Memorandum from the soviet ambassador to the DPRK to the chairman of the USSR council of ministers with a brief description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in the south and north of Korea, 1949. 9. 15.”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korean-war-origins-1945-1950>
 (검색일: 2017. 9. 25).

66) “모스크바로 보내는 시티코프의 전보, 1949. 8. 12. 폰드 3, 목록 65, 문서 775, 리스트 102-106,” A. V. 토르쿠노프,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서울: 에디터, 2003), p. 75.

67) “슈티코프 대사와 김일성과 박헌영간 대화를 수록한 1949년 8월 14일자 비망록,” 예프게니 바자노프, 앞의 책, p. 26.

영토인 옹진반도 동쪽 부근과 개성까지 점령하여 인민군의 방어선을 단축하고자 하는 의사를 타진하였다. 김일성은 옹진반도에 대한 국지전을 전개한 이후 국제 상황이 허락할 경우 남쪽 방향으로 더 진격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짧게는 2주일 길게는 2개월” 내에 남한을 점령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⁶⁸⁾ 신속한 군사공격으로 승리를 쟁취하면 남한 내에 분열을 형성하고 인민봉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었다.

1949년 김일성이 제안한 남침전략은 개전에 대한 조바심으로 가득한 반면 남한의 전략적 중심(center of gravity)을 타격하는 정치적, 군사적 차원의 현실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지 못했다. 김일성이 제시한 방법은 기껏해야 남한의 유격대와 인민봉기와의 결합으로 남한 정권을 단 시간 내에 전복시킨다는 희망적 사고에 기반을 둔 것뿐이었다. 슈티코프가 언급했듯이 그러한 ‘이상적인 계획’에 대해서 소련지도부의 평가는 적어도 1949년 말까지는 입장을 달리 했다. 1949년 9월 24일 소련 공산당 정치국은 김일성이 제기한 대남 군사작전 안을 금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소련은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군은 남한에 비해 군사력의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하며 정치적 관점에서도 인민 총궐기를 위한 세력을 조직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련은 김일성이 제시한 국지전 전략도 전쟁 개시로 간주되어 남한에 의한 대규모 반격으로 인해 확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북한의 침략 전쟁이 장기화되어 미군 개입의 구실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⁶⁹⁾ 김일성의 개전 욕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949년 말로 갈수록 강렬하게 변했다. 김일성은 9월 24일의 스탈린의 남침 거부 방침을 마지못해 받아들였지만, 국지전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10월 14일

68) “모스크바로 보내는 툰킨의 전보, 1949년 9월 3일자,” 예프게니 바자노프, 앞의 책, p. 28.

69) “Politburo Decision to Confirm the following Directive to the Soviet Ambassador in Korea, 1949, 9. 24.”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korean-war-origins-1945-1950>
(검색일: 2017. 9. 25.).

소련의 합의와는 무관하게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옹진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은 김일성의 옹진공격에 대한 무책임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38선상에서 충돌을 피하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1950년 1월까지 남한에 대한 군사공격에 대해 김일성은 소련의 허가를 얻는 데 실패하였다.

4. 전쟁계획: 군사적 모험주의

가. 희망적 사고에 기초한 전쟁계획

김일성은 1950년 초 대내외정세가 남침을 위한 적기라고 보았다. 그것은 충분한 준비가 아니더라도 ‘적기’에 전개되는 군사작전이 더 큰 전략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릴라전식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49년 말에서 1950년으로 해를 넘기면서 동북아 국제정세는 북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1949년 12월 16일 마오쩌둥이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등 국제정세가 유리하게 조성되자 북한은 무력통일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었다. 1950년 1월 6일 코민포름이 미 점령군과의 대결을 피해온 일본공산당의 노선을 비판하는 등 일본에서의 미국의 지위에 대해 소련이 도전하였고, 이어서 1월 12일 애치슨이 불퇴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성명을 발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 1월 17일 김일성은 소련대사 슈티코프에게 중국이 해방되었으니 이제는 남한 인민을 해방할 차례라고 하면서 “3일이면 옹진반도를 점령할 수 있고 전면전이 개시되면 단 며칠 사이에 서울을 점령할 수 있는데 왜 소련이 옹진반도 점령을 허가하지 않느냐”고 남침의사를 타진했다.⁷⁰⁾

70) “Telegram from Shtykov to Vyshinsky, 1950. 1. 19,” James Person, *New Evidence on the Korean War* (Washington D. C.: Woodrow Winson Center, 2010).

스탈린은 1949년 말까지만해도 김일성의 무력통일 계획을 비판하면서 거부하다가 1950년 초에 와서 입장을 바꾸었다. 김일성은 1950년 3월 30일부터 4월 25일까지 모스크바에 머물면서 세 차례 스탈린을 만나 전쟁모의에 돌입했다. 이후부터 진행된 스탈린-김일성의 남침모의는 ‘희망적 사고’에 경도되었다. 가장 중요한 시험대는 미국의 개입가능성 여부였다. 김일성은 중소동맹 조약의 체결로 미국은 아시아 공산주의와의 도전에서 더욱 주저할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 내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조선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은 조선혁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다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미국의 개입 가능성과 중국지도부의 찬성,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다.

김일성의 희망적 사고는 미국 개입가능성과 남침전략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우선, 김일성은 미국의 개입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이 배후에 있어 북한을 원조할 것이라는 점을 미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⁷¹⁾ 김일성은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영향권하에 들어가는 것을 중국과 소련이 원치 않을 것이며, 만약 미국이 개입한다면 소련과 중국이 손을 놓고 좌시하지만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일성이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낮게 본 데에는 인민봉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이유를 인민군의 공격 시 남한 내 유격대 활동이 강력해지며 대규모의 봉기가 전개되고 공격이 신속히 전개되어 전쟁이 “3일 이내”에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미국은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며, 그들이 정신을 차리게 될 쯤이면 이미 전 조선의 주민들이 새로운 정부를 열광적으

71) “전 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김일성의 소련 방문(1950. 3. 30-4. 25)에 관한 보고, 러시아 대통령실 문서고,” 예프게니 바자노프, 앞의 책, p. 53.

로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⁷²⁾ 김일성의 전략은 신속한 군사전 수행을 통해 남한영토를 점령하여 이를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함으로써 있을지도 모르는 미군의 개입을 무의미하게 만들자는 것이었다.⁷³⁾

스탈린이 반대로 일관하다가 1950년 초에 와서 급작스럽게 김일성의 남침계획을 승인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이 분분하다. 스탈린은 ‘국제환경의 변화’ 때문에 자신의 동북아 정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면에는 베를린 봉쇄사태 등 유럽에서의 미소냉전게임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고자 극동에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 1950년 2월 조인된 중소협정에 따른 만주지역 소련군 철수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부동항 확보 의도,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 해양세력의 대륙 침략 방지 의도 때문에 스탈린이 김일성을 앞세워 전후질서의 현상변경을 가하려고 했다는 해석이 있다.⁷⁴⁾ 다양한 국제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했던 것으로 보이는 스탈린의 계산은 김일성의 ‘군사적 모험주의’와 무력통일 야심과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스탈린은 단기 결전을 통한 신속한 현상변경과 기정사실화에 중점을 둔 김일성의 남침전략을 지지했다. 스탈린은 남침작전을 위한 3단계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1단계는 38선에 인접한 특정 지역에 병력을 집중 배치하고, 2단계는 북한이 평화통일 제안을 제시하며, 3단계는 남한이 평화제의를 거부한 뒤 기습공격을 가하는 단계이다. 스탈린은 웅진반도에서 적과 교전을 실시하여 어느 측이 전투를 시작했는지 모르도록 위장하고, 북한의 기습공격과 남한의 대응공격 이후 전선확대의 기회를 포착해야 하며, 속전속결을 통해 남조선과 미국이 정신 차릴 시간을 주지 않

72) “전 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김일성의 소련 방문(1950. 3. 30-4. 25)에 관한 보고,” 예프게니 바자노프, 앞의 책, p. 54.

73) Archer Jones, *Elements of Military Strategy: An Historical Approach* (Westport: Praeger Publishers, 1996), p. 142; 온창일, 『한민족전쟁사』(서울: 집문당, 2008), p. 481.

74) 남시욱, 『6.25전쟁과 미국』(서울: 청미디어, 2015), pp. 24-25.

며, 강력한 저항과 국제적 지지를 동원할 시간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⁷⁵⁾ 그러면서 미국의 개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남한에서의 전쟁을 종결짓기 위해서 신속한 “전격전”을 수행하라고 지시했다.⁷⁶⁾

스탈린이 부여한 남침개시를 위한 두 번째 전제조건인 중국의 허락을 받기 위해 김일성은 마오쩌둥과 전략회의를 하였다. 5월 13-15일 베이징 회동에서 마오쩌둥은 조선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지지하며 성공을 확신한다고 하였다. 스탈린이 제시한 3단계 전략에 대해서도 마오쩌둥은 전적으로 찬성하였다. 다만, 마오쩌둥은 조선인민군이 신속히 행동하고 대도시를 점령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회 진격해야 하며, 적의 “군사력 파괴”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⁷⁷⁾ 미국의 개입 전망에 대해서는 마오쩌둥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남북한 통일은 불가능하며 통일은 군사적 수단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고, 미국에 관해서는 두려워 할 필요는 없으며 이런 작은 땅덩어리 때문에 미국이 제3차 세계대전에 뛰어들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⁷⁸⁾ 김일성도 또 다시 일본군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미군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일축하였다.⁷⁹⁾

75) “전 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김일성의 소련 방문(1950. 3. 30-4. 25)에 관한 보고, 러시아 대통령실 문서고,” 예프게니 바자노프, 앞의 책, p. 54.

76) 김철범, 『진실과 증언 : 40년 만에 밝혀진 한국전쟁의 진상』(서울: 을유문화사, 1990), p. 144.

77) “Telegram from Roshin to Cde. Filipov(Stalin), 1950. 5. 14.”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korean-war-origins-1945-1950>
(검색일: 2017. 9. 25.).

78) “Telegram from Shtykov to Vyshinski Regarding Meeting with Kim Ilsung, 1950. 5. 12.”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korean-war-origins-1945-1950>
(검색일: 2017. 9. 25.).

79) “Telegram from Roshin to Cde. Filipov(Stalin), 1950. 5. 14”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korean-war-origins-1945-1950>
(검색일: 2017. 9. 25.).

나. 전략수준의 부조화

김일성의 전면전 수행전략은 명확해졌다. 김일성의 우선 목표는 전쟁초기단계의 ‘군사적 승리’를 통해 서울을 점령하는 데 있었다. 김일성은 인민군 전력증강을 급속히 추진하여 1950년 1월과 4월 사이에 5개 사단규모에서 10개 사단으로 전투력을 급속히 확충하였다. 김일성은 1950년 3월 20일 중국 인민해방군으로부터 조선족 부대인 독립 제15사단을 인수받아 인민군 제12사단으로 개편하는 등 조선족 부대의 병력은 전체 인민군 군관의 1/3을 차지했고 인민군의 골간을 형성했다.⁸⁰⁾ 1950년 3월까지 제4독립 혼성여단은 제4사단으로, 1, 2, 3 민청 훈련소는 각각 13, 10, 15사단으로 승격되었다.⁸¹⁾ 이로써 조선인민군은 실질적인 전투력에 있어서 수뇌부의 현대전 지휘능력을 제외하고는 소련군의 최신식 장비와 조선족 부대의 실전이 융합된 강력한 군대로 성장했다.

스탈린과의 전쟁모의를 마치고 4월 25일 평양으로 복귀한 뒤 김일성은 기습을 통한 군사적 승리에 중점을 두고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마오쩌둥과 최종 전략회담을 마무리 지은 5월 15일 이후 김일성은 남침시기를 6월 말로 확정하고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인민군의 전투준비에 대한 정보가 남한으로 누출될 가능성과 7월의 장마기간을 고려하여 ‘6월 말’을 공격개시 시점으로 정하고자 했다. 김일성은 부대이동이 16일 소요된다고 판단하여 6월 8-10일 기간 중에 38선 일대로 부대를 이동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⁸²⁾ 김일성은 5월 30일까지 개전시점에 대해서 당 정치국에도 알리지 않았으며

8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 : 전쟁의 배경과 원인』, p. 277.

81) 슌즈키 마사유키, “북한군의 창설에서 대남침공으로,” 『일본의 6.25전쟁 연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p. 38.

82) “From Shtykov to Vyshinski, 1950. 5. 30.”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korean-war-origins-1945-1950>
(검색일: 2017. 9. 25.).

1950년 6월 12일 인민군을 38선에서 10-15km 떨어진 지점으로 이동시키고 최전방 사단장 및 참모장, 포병 부대장을 대상으로 특별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구체적인 임무를 각 단위부대에 하달하였으며 특별히 ‘비밀유지’를 강조하였다.

군사계획은 철저한 소련식 전격전이었다. 남침계획도 소련 군사고문단의 지시 하에 전격전 전략으로 완성되었다.⁸³⁾ 북한에는 현대식 정규전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경험이 일천했기 때문에 소련 군사고문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써 한반도 지형과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소련군 전법이 기계적으로 적용되었다.⁸⁴⁾ 세부 계획은 3단계 작전으로 구분되었는데, 1단계 작전은 6월 25일 공격을 개시하여 웅진반도에서 국지전처럼 행동을 개시한 이후 주타격 방향을 서해안을 연해 남진하는 데 두었으며, 2단계 작전은 서울을 점령하고 한강을 장악하는 동시에 동부전선에서 춘천과 강릉을 점령하고 남한군 주력을 서울 주변에서 포위 격멸하는 데 있었다. 3단계 작전은 남한군의 잔여 병력을 소탕하고 주요 인구밀집 도시와 항구를 점령하여 남한의 나머지 지역을 점령하는 데 역점이 있었다.⁸⁵⁾

전쟁의 핵심국면은 초기전역으로서 5일 이내에 서울 방면에서 남한군 주력을 섬멸하고 서울점령을 통해 심리적 중심부를 장악하는 데 목

83) 올레그 O. 벨로슬룻제프, “소련군인의 6.25전쟁 참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연구경향 및 사료해제』(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9), p. 262.

84)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 : 조선인민군 324부대 관하 장병들 앞에서 한 연설, 1958. 2. 8,” 『김일성선집 5』, p. 321. 김일성도 이점을 인정하고 있다. “6.25 이전에는 우리 군관들 속에 싸움을 해본 동무들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있었다면 유격 투쟁 당시 일본 군대와 싸운 경험을 가진 간부들이 있었을 따름입니다. 일본 군대와 싸운 빨치산의 전투 경험과 현대적인 큰 전쟁을 한 경험을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전쟁 전 평화적 건설 시기에 우리 군대는 전투 훈련이나 해보았을 뿐 실지 전투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때에는 대포알이 어떻게 터지고 총알이 어떻게 나간다는 것을 실지 전투에서 경험하지 못한 군인들이 거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85)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1950년 6월 16일자 전문,” 예프게니 바자노프, 앞의 책, p. 74.

표를 두었다. 구체적으로 38선 북방과 남방 접경지역의 남한군 주력을 격파하여 서울을 점령하고, 수원-원주 선까지 총90km의 작전 중심을 5일 만에 도달하도록 계획하였다.⁸⁶⁾ 이를 위해 전격전의 핵심인 기계화 부대를 집중 운용하여 신속하게 기동하도록 계획하였다. 북한은 105땅크여단의 2개 땅크연대(107, 109연대)와 차량화연대를 주공 방면인 철원-서울 축선에 투입하고, 남천동-개성 축선에 203땅크 연대를 투입하여 개전 당일 오후까지 의정부까지 진출시키며, 2일째 4사단과 3사단과 협조하여 서울을 점령하게 하였다.⁸⁷⁾ 특히 105땅크여단은 서울에 진입하여 한강교를 점령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조공 방면에는 603차량화연대를 투입하여 12사단이 남한군의 방어선을 돌파할 시 춘천-홍천-원주 방면의 남한군 후방으로 진출하여 현지 유격대와 합류하여 남한의 병참선을 마비시키고 수원으로 진격하여 서울로부터 후퇴하는 남한군의 퇴로를 차단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결정적 시기인 6월 25일이 다가오자 남한을 기만하기 위해 북한은 1950년 6월 16일 남한 국회에 ‘평화통일안’을 제안하였다. 소련 측은 남한이 평화 통일안을 거부하자 “우리의 계획을 예정대로 실행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⁸⁸⁾ 6월 18일 인민군 총사령부는 정찰명령 제1호를 부대에 하달하여 공격대기진지에 진입한 다음 공격 개시 전후에 단계별로 수집해야 할 정보요구를 구체적으로 하달하였다.⁸⁹⁾ 6월 21일 김일성은 남한의 라디오 방송과 정보보고를 토대로 남한이 임박한 인민군의 공격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고 남한군이 군사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초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건

8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2』(서울, 2001), p. 137.

87) 위의 책, p. 12.

88)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1950년 6월 11일자 전문,” 예프게니 바자노프, 앞의 책, p. 74.

8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군사관계사료집1:북한군 전투명령』(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1), pp. 6-27.

의하였다. 즉 1단계 작전을 용진반도에 대한 국지작전 대신에 6월 25일 전 전선에 걸친 전면공격을 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⁹⁰⁾ 스탈린은 김일성의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였다.

북한의 남침계획은 유격대 지휘관 김일성과 대규모의 소련군식 전격전의 불균형적인 만남으로 요결된다. 김일성은 1949년 초부터 초전의 확고한 ‘군사적 승리’를 인민봉기와 결합하면 신속하게 남한을 점령할 수 있다는 단순한 전술 편향적 사고에 고착되어 있었다. 마치 ‘속도’만 높이면 남한전역을 순식간에 석권할 수 있다는 전투중심의 사고가 자리 잡고 있었다. 미군의 개입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인민봉기의 기대를 가지고 추진한 속승의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 김일성은 초기단계에서 의심할 여지없는 확고한 군사적 승리를 기정사실화 해야만 했다. 그의 전쟁계획은 앞으로 닥쳐올 전쟁의 마찰을 마치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다.

5. 전쟁수행: 전략의 경직성

가. 마찰의 등장 1: 군사적 수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공격은 전격전식으로 개시되었다. 인민군은 개전 3일 만인 6월 28일 새벽 미아리고개를 넘어섬으로써 국군의 서울 방어선을 돌파하였고 국군의 조직적인 저항을 무력화시켰다. 6월 28일 11시 30분 경 인민군이 서울 중심부에 도달하자 김일성은 서울을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선언했다.⁹¹⁾

90)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1950년 6월 21일자 전문,” 예프게니 바자노프, 앞의 책, p. 76.

91) “서울시 해방에 즈음하여 전국인민들과 인민군대와 서울시민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1950. 6. 28,” 『김일성전집 1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52.

그러나, 북한의 전격전 시나리오는 초기부터 발목이 잡혔다. 북한은 3-5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국군 주력을 포위섬멸하려 했으나 그 목표는 좌초되었다. 인민군은 6월 28일 11시 30분 서울 점령 후에도 한강교의 조기 점령에는 실패하였고 국군 주력이 한강 이남으로 후퇴하여 재편성할 여유를 허용하였다. 6월 28일 오후 4시 경 인민군은 서울 남쪽을 우회하여 이촌동을 점령할 때까지만 해도 남한군은 한강 남방으로 퇴각하여 도하지점이 일대 혼란 상태였으나, 인민군은 적극적으로 추격하거나 한강 도선장들을 점령하지 않은 채 모호하게 행동하였다. 소련 군사고문은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 극단적으로 완만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지휘관들도 부여된 임무를 유기하였기 때문에 남한군이 한강을 도하하고 교량을 파괴한 후 한강 남안에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며 비판했다.⁹²⁾ 인민군은 한강 이남에 남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7일이라는 시간을 소비한 7월 4일에서야 2단계 작전을 시행할 수 있었다. 105땅크사단은 7월 1일까지 수원을 점령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나, 7월 4일 아침에야 사단 주력이 한강 도하를 완료하였다.

여기에는 전쟁준비와 계획에 있어 마찰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한 탓이 크다. 북한군이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개전을 했음이 드러난다. 6월 28일 이후 북한군의 군사적 정지는 인민봉기에 대한 환상뿐만 아니라 도하장비의 부족, 인민군의 비효율적인 지휘, 차후 작전을 위한 전열정비, 남한 지형에 부적합한 소련군 전술의 기계적 적용과 같은 군사적 장애요인과 마찰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인민군의 도하장비 부족은 인민군의 한강도하 작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인민군은 창설 초기부터 소련 군사고문단에 의해 한반도의 지형에 대한 잘못된 상황 평가에 기초하여 부대가 편제되었기 때문에 한반도 실정에 맞지 않는

9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 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p. 184.

공병장비를 갖추고 있었다.⁹³⁾

지휘부의 지휘통제상의 결함도 한몫 했다. 인민군의 각 사단은 무서운 속도로 남진을 했음에도 군사 지휘부인 총참모부는 전선 상황을 통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개전 첫날에 각 사단과의 교신이 불량하여 전투 통제가 불가능했으며, 군단 예하 각 부대도 상급부대 참모부와 통신유지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대대 이상의 지휘소는 상급부대의 동의 없이 위치를 함부로 변경하는 등 지휘체계상에 문제를 드러내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상급지휘관들이 전투 경험이 없어 소련 군사교문이 떠난 후 전투를 조직적으로 지휘하지 못하고, 화포와 탱크의 운용이 미숙하였으며 교신 유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⁹⁴⁾ 단적으로 6월 26일에는 심지어 흥천 축선으로 공격하는 12사단과 의정부 축선으로 공격하는 3사단과 하루 종일 연결이 되지 않았다.⁹⁵⁾

서울 이남에서 국군주력을 섬멸한다는 당초계획에 차질을 준 다른 요인은 동부전선의 조공 부대의 진출이었다. 보조타격방향에 투입된 인민군 2군단 예하 2사단과 12사단은 국군 6사단의 선방으로 춘천 점령이 늦어지고 흥천 북방에서 저지당하여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⁹⁶⁾ 당초 이들은 인민군의 조공으로 6월 25일 당일 춘천을 점령한 이후 수원 방향으로 진출하여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여 1군단과 협공하여 국군의 주력을 포위 섬멸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 그러나 국군 6사단의 선방으로 6월 25일 춘천 점령은 고사하고 오히려 큰 손실을 입고 공격력이 약화되었다. 이에 인민군 12사단은 흥천축선의 2개 연대를 춘천으로 전환하여 2사단과 협공하여 당초 목표 보다 48시간이 지연된

93)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서울: 고려원, 1990), p. 304.

94) “러시아 연방 국방성 중앙문서보관소, 문서군 5, 목록 918795, 문서철 122, 9-14쪽, 사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과천, 2006), p. 64.

95) “Top Secret on Military Situation by Shtykov to Comrade Zakhrov, 1950. 6. 26.”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korean-war-origins-1945-1950> (검색일: 2017.9.25.).

9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서울, 1995), p. 165.

6월 27일 저녁에 가서야 춘천을 점령할 수 있었다.⁹⁷⁾ 인민군 1군단이 서울시내의 주요 기관을 장악한 이후에도 2군단은 춘천점령에 실패하여 수원으로의 우회기동이 불가하자 포위섬멸작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이다.⁹⁸⁾

이것은 기계화 부대의 운용에 있어서 계획상, 운용상의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인민군은 소련군의 전격전 교리의 기계적 적용 때문에 한반도 지형의 특수성을 면밀히 감안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12사단 지역에 투입된 603차량화연대는 기동성을 발휘할 수 없는 산악 지형에 투입되었다.⁹⁹⁾ 이에 따라 603차량화연대의 강점이 전혀 활용되지 못했으며 서울에서 퇴각하는 남한군의 퇴로를 수원 지역에서 차단한다는 당초의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¹⁰⁰⁾ 김일성이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전쟁 초기 우리의 인민군 부대들은 우리나라의 지형 조건에 맞는 전법을 잘 연구하지 못하여 일정한 곤란을 겪었다”라면서 소련전법의 기계적인 적용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바로 이 당시 상황을 두고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⁰¹⁾

나. 마찰의 등장2: 정치적 수준

김일성의 ‘머릿속 전쟁’을 지탱했던 두 가지 핵심가정인 미군개입과 인민봉기에 대한 기대도 예측을 빗나갔다. 미군이 개입하더라도 서울 점령을 통해 남한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믿음은 개전 3일 만에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미국이 예상외로 빨리 움직인 것이다. 미국

9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137.

98)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서울, 1984), p. 346.

99) 김철범, 『진실과 증언 : 40년 만에 밝혀진 한국전쟁의 진상』, p. 147.

10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2』, p. 12.

101)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1983. 6. 30,” 『김일성저작선집 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152-153.

은 6월 25일 유엔안보리 소집을 요청하였고, 6월 26일 유엔은 북한의 남침을 ‘평화 파괴’로 규탄하고 북한에게 전투행위의 즉각적인 중지와 38도선 이북으로 철군을 촉구하였다.¹⁰²⁾ 김일성이 계속해서 공격을 진행하여 6월 27일 서울 북방으로 진출하자 트루먼은 해·공군을 이용하여 38도선 이남의 북한군 부대, 전차, 포병에 대한 공격을 하도록 허가하였으며 미 7함대를 대만 해협으로 배치하였다.¹⁰³⁾ 6월 28일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국은 6월 29일 해·공군 작전지역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였다. 6월 30일 백악관은 맥아더 장군에게 휘하에 있는 병력을 사용할 전권을 부여하고 지상군 파병을 사실상 결정하였다.¹⁰⁴⁾ 미국 참전 결정은 개전 6일 만에 이루어졌으며, 미군은 맥아더 휘하에 있는 주일미군을 전개시킨 다음 7월 말부터 미 해외 및 본토로부터 증원 병력을 전개하였다.

미군의 신속한 참전결정은 북한에게는 충격이었다. 김일성은 6월 30일까지 서울 일대에서 국군의 주력을 포위 섬멸하고 수원-원주-삼척선을 점령하겠다는 의도가 좌초되고 한강 방어선을 돌파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미군의 지상군 투입이 결정되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6월 29일 미 극동공군이 인민군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자 김일성이 과연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퍼졌다. 김두봉, 홍명희 등의 북한 지도자들은 북한이 미국에 힘으로 대항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무리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김일성에게 “조심스레” 이 문제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¹⁰⁵⁾ 평양, 원산, 남포, 함흥에 대한 미군 폭격으로 공장가동도 제한되었으며 미군이 개입한 이상 소련과 중국의 지원 없이 전쟁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고개 들기 시작했다.¹⁰⁶⁾ 7월 5일

102) 이서항, “유엔과 한국전쟁의 휴전과정”, 강성학 편, 『유엔과 한국전쟁』(서울: 리북, 2004), p. 59.

10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173.

10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2』, p. 110.

10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전문, No. 423, 1950. 7. 1,” 군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p. 69.

미지상군 상륙이 임박하자 김일성은 전쟁의 결말에 대해 우려하는 김두봉, 김달현을 질책하기까지 했다.¹⁰⁷⁾ 당황한 것은 스탈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7월 1일 슈티코프에게 전문을 보내 “그들이(인민군) 계속해서 전진할 생각인지, 진군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는지 보고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계속 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이 빨리 해방될수록 군사적인 간섭의 기회는 줄어들 것입니다”라면서 미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이전에 인민군이 신속하게 남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¹⁰⁸⁾

김일성이 기대하던 인민봉기도 없었다. 전황이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음에도 김일성이 기대하던 인민봉기는 ‘허상’에 지나지 않았음이 명백해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막상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서대문 형무소를 ‘해방’시켰어도 자발적인 자체봉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월 30일 인민유격대가 해방구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선전은 요란했으나 지리산, 경남북, 호남지역의 몇몇 유격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¹⁰⁹⁾ 김일성이 기대했던 인민봉기가 불발된 것은 김일성의 ‘속도전’과 ‘기습’에 고착된 전쟁계획에서 비롯된다. 인민군이 6월 25일 초기 군사공격에서 기습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남침계획에 대한 철저한 보안유지에 있었으나 ‘보안유지’는 역으로 정치전의 효과를 감소시킨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김일성은 상급 지휘계선에서만 남침계획에 대한 정보를 유

106) “Memorandum on the Political Situation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Military Operation, 1950. 8. 11.”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korean-war-origins-1945-1950>
(검색일: 2017. 9. 25.).

107) “북한주재 소련대사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No. 468, 1950. 7. 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p. 75.

108) “소련내각회의 의장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에게 보낸 전문, 임박한 전투작전 시기의 조선인민군 사령부의 계획을 확인하는데 대하여, 1950. 7. 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p. 64.

109) 『人民日報』(1950. 7. 1).

통시킴으로써 인민군의 연대급 제대는 물론이거니와 남한 내 활동하는 남로당지휘부도 남침계획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6월 초에 남한으로 파견된 공작조들은 물론이거니와 남한 내의 남로당원들과 유격대들조차 남침 정보를 접할 수가 없었다.¹¹⁰⁾ 강동정치학원에서는 5월 말부터 월북한 남한출신 공작원들을 훈련하면서도 6월 25일 아침에도 남침사실을 모르고 있을 정도였다.¹¹¹⁾ 개전 약 20일 전부터 도별로 남파된 남로당원들도 보도연맹원들에게 조차 인민군의 남침정보를 제대로 전파하지 못했다.¹¹²⁾

기대하던 인민봉기와 유격전이 일어나지 않자 김일성은 그간 장담해왔던 ‘3일 이내 전쟁종결’이라는 단기결전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했다. 기대했던 인민봉기가 일어나지 않고 단기결전의 가능성이 사실상 멀어지는 가운데 미군이 참전을 결정하자 김일성은 전혀 예측하지 않은 ‘새로운 전쟁’을 시작해야 했다.¹¹³⁾ 미국의 개입과 당혹감, 이것이 6월 28일 이후 인민군의 서울에서의 완만한 행동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다. 전쟁수행의 경직성1: 속도전 고착

국군주력 섬멸에 실패한 이후 이미 ‘새로운 전쟁’ 국면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김일성은 서울점령과 협상이라는 제한전략을 추구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좌고우면하지 않았다. 전쟁의 마찰이 커지는 상황에서 김일성은 오로지 하나의 가능성에 도박을 걸었다. 그것은 일관되게 ‘속도전’이었다. 김일성에게는 ‘시간’이 전쟁수행의 결정적인 변수가 되어 버

110) 박갑동,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31화: 내가 아는 박헌영,” 『중앙일보』(1973. 8. 23).

111) 김철범, 『진실과 증언: 40년 만에 밝혀진 한국전쟁의 진상』, p. 83.

112) 조한범 외, 『구술로 본 북한현대사 재인식 : 김남식, 이항구』(서울: 선인, 2006), p. 92.

113) “유마니테 신문기자 마니양씨의 질문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일성 장군의 대답, 정치상학 교원들과 선전원들에게 주는 자료1,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1950. 8.”

렸다. 미군의 대대적인 개입이 임박하자 김일성은 미군이 대량으로 동원되기 전에 유엔군을 “단 시일 내에 소탕하고” 인민군을 신속히 남진시켜 한반도를 석권함으로써 미국의 증원부대가 상륙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¹¹⁴⁾ 김일성은 미군의 공습으로 인한 난국을 인식하면서 신속히 승리를 확정짓기 위해 모든 병력을 남한 공격에 집중하며 이를 위해 인적 물적인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결심했다.¹¹⁵⁾

속도전에 기우는 김일성의 전략은 앞으로 닥쳐 올 전쟁의 마찰에 대한 통찰 없이 전쟁을 단순히 ‘전투’처럼 수행하고자 했던 전술편향에 기반하고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우선, 그의 전쟁은 소련의 ‘지도’ 없이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김일성은 그제야 소련 군사고문단을 현지에 배치해 줄 것을 스탈린에게 시급히 요청하였다. 김일성은 7월 5일 인민군의 작전지휘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전선사령부를 서울로 이동시킨다는 결정과 함께 소련군 군관 2명씩을 군단 고문으로 배속(군단장 고문, 포병사령관 고문)하고 바실리에프를 비롯한 군사고문단을 전선사령부에 배속할 것을 요청하였다.¹¹⁶⁾ 전선사령부의 참모장 강건은 소련 군사고문단 없이는 아예 부대를 지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일성도 인민군 간부들이 “현대적 지휘기술을 충분히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25-30명의 소련 군사고문들을 전선사령부와 각 군단으로 배치해줄 것을 스탈린에게 요청하였다.¹¹⁷⁾ 나아가, 김일성은 전쟁지속

114)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25:조국해방전쟁사1』(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p. 85-86.

1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 내각회의의장에게 보낸 전문, 1950. 7. 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p. 69.

116) “Telegram from Shtykov to Stalin, 1950. 7. 6.”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korean-war-origins-1945-1950>
 (검색일: 2017. 9. 25.).

117) “Ciphered Telegram, Shtykov to Stalin, transmitting Letter from Kim Il-sung to Stalin, 1950. 7. 8.”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korean-war-origins-1945-1950>
 (검색일: 2017. 9. 25.).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동원 체계를 전시체제로 일제히 전환하였다. 김일성은 인민군의 병력증강을 위해 7, 8, 9사단을 창설하였으며 전시 총동원법을 제정하였다. 7월 4일에는 김일성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전시 권력이 김일성에게 집중되었다.

‘시간’과의 전쟁이 되어버린 7월 초 이후의 전쟁은 오로지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이었다. 미군의 공중공격과 포병공격에 의해 주간공격이 제한되는 악조건하에서 미군의 추가적인 증원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남한 전역을 점령하려는 조급함이 더 컸다. 실제 인민군의 진격속도는 실제 매우 빨랐다. 인민군의 진격 속도가 후퇴하는 남한 경찰 병력의 속도를 추월할 정도였다.¹¹⁸⁾ 그러나 김일성의 조바심은 더 컸기 때문에 모순적인 지시를 반복했다. 급기야 김일성은 7월 16일 직접 서울로 내려 와서 전선사령부에서 직접 대전지역의 작전을 지휘하였는데,¹¹⁹⁾ 여기서 그는 7월 16일 이전까지의 작전이 밀어붙이기식 전쟁에 집착하였으면서도 과오를 인정하였다.¹²⁰⁾ 그러면서도 김일성은 7월 20일 대전을 점령한 후에도 전선사령관 김책과 참모장 강건이 “여전히 상황의 정치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높은 속도로 남진할 것을 지시하는 모순을 보였다. 김일성은 두 번이나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선사령부에서는 미군 항공대를 핑계로 주간에는 작전이 불가능하고 야간에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면서 명령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분개했다.¹²¹⁾

전쟁은 단기결전으로 종결될 수 없음이 명확해진 가운데 미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하자 김일성은 더욱더 ‘속도’에 집착했다. 그러나 단순한

118) 정현수 외, 『중국조선족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서울: 선인, 2006), pp. 188.

119)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25』, p. 175.

120) “대전해방작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며 전선연합부대들의 남진속도를 더욱 높일데 대하여: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작전회의에서 한 연설, 1950. 7. 16,” 『김일성전집 12』, p. 140.

1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 내각회의의장에게 보낸 전문, 1950. 7. 2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pp. 87-88.

속도전은 인민군 작전의 악순환의 고리를 강화시켰다. 김일성은 도시와 지역의 점령에 주안을 두었기 때문에 국군과 미군을 완전히 포위소멸하지 못하고 후퇴를 허용하였다. 국군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연한 공격이 아니라 산악을 이용하여 국군의 측면과 후방으로 우회하여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포위 섬멸하는 데 주력했어야 하지만 산악전과 야간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김일성은 다급해질수록 국군 주력을 섬멸하기 보다는 ‘밀고만 나가는’ 식의 공간 확보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미 지상군의 개입이 본격화된 7월 중순은 북한군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판단의 전환점이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좌우를 살필 만한 눈과 마음이 없었다. 7월 19일 마오쩌둥은 미국의 개입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인민군 주력의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 “어디에서 후퇴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¹²²⁾ 그러나 김일성은 마오쩌둥의 문제 제기에 아랑 곳 없이 대대적인 미군개입 이전에 유엔군을 격퇴하겠다는 군사목표를 밀어붙였다. 북한군이 제한전과 협상에 돌입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있었어야 했으나, 김일성의 전쟁 수행은 이미 한곳으로 경직되어 있었다. 좌고우면하기보다 오로지 속도전으로 겨우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남한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데 도박을 걸었다.

라. 전쟁수행의 경직성2: ‘예비’의 부재

전선이 교착상태로 접어든 8월 말부터 김일성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문제의 본질은 김일성이 이에 대한 ‘예비’적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정이 무너지면 전략적인 예비라고 부를 무언

1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 내각회의의장에게 보낸 전문, No. 649. 1950. 7. 2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p. 89.

가가 있었어야 하나 그러한 것이 존재할 리가 없었다. 소련은 모른 체 했고, 중국은 말로만 지원했다. 김일성은 어느 누구를 탓할 입장이 아니었다. 오로지 자신만이 전쟁의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이다. 국군주력 섬멸에 실패한 이후 이미 ‘새로운 전쟁’ 국면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김일성은 현상유지와 협상의 제한전략을 추구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좌고 우면하지 않았다. 김일성의 결정은 1949년 3월 초의 전술편향에 기초한 속전주의의 복사판이었다.

8월 중순부터 낙동강 전선에서 인민군의 전쟁지속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였지만 ‘실질적인’ 예비는 없었다. 김일성이 보유한 14개 사단 중 10개 사단(6, 4, 10, 3, 15, 13, 1, 8, 12, 5사단)과 105땅크사단이 전선에서 전투 중이었고 3개 사단만이 예비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공격작전으로 인민군부대는 병력과 장비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특히 공격의 첨단에 있는 1, 3, 4, 6, 15사단의 병력 손실은 컸으며, 단적으로 3사단과 1사단의 연대들은 전투인원 100-200명에 불과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다. 전투 중인 부대는 8월 18일까지 병력을 보충 받았으나 물자는 거의 보충 받지 못했다.¹²³⁾ 미 공군의 제공권 장악으로 인민군은 부대를 재편성할 인원과 장비의 이동이 제한되었고 후방 지역에서 전선 지역으로 물자와 보급품을 공급하는 것이 곤란하여 전선 지역에서는 적시에 충분한 병력과 전투 물자, 그리고 유류와 식량을 보급 받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유엔군은 전열을 정비하고 반격을 위해 전투력을 결집하고 있었다. 유엔군은 부산 교두보에 10개 사단(미 2, 24, 25사단, 1기병사단, 1해병사단, 국군 1, 3, 6, 7사단, 수도사단), 그리고 영국 27여단, 5개 독립연대를 집결하였다. 이들 부대들은 병력과 장비 면에서 보충을 받아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제공권과 제해권은 전적으로 유엔군에 유리하였으며 전력 면에서도 유엔군이 보병과 포병은 2배, 전

123) 러시아 국방부,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서울: 오비기획, 2002), p. 49.

차는 10배 이상의 우세를 점하게 되었다.¹²⁴⁾ 미군과 국군이 전력의 우위를 점하게 되고 공세전환을 위한 여건조성에 돌입하자 김일성은 전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공세를 추구하였다. 8월 중순 이후 김일성은 인원 장비 면에서 매우 열세한 상황에서 공격을 추진했으며 105땅크사단의 경우 공격개시까지 병력과 장비를 전혀 보충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8월 26일 김일성은 이미 미국이 인천과 수원지역에 해병대를 상륙시키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으나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김일성은 8월 26일 전선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파병 문제를 스탈린에게 요청하려고 했다.¹²⁵⁾ 그러나, 베이징을 방문한 박헌영과 이상조에게 마오쩌둥은 인민군의 ‘전략적 후퇴’의 가능성도 고려하라고 조언할 뿐이었다.¹²⁶⁾ 김일성은 진격할 만한 능력도 그렇다고 후퇴할 여유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 8월 29일 김일성은 내무성, 민족보위성 및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불러 임박한 미국의 상륙작전에 대비한 “후방보위” 방침을 하달하였다. 김일성은 미국이 대병력을 동원하여 동서해안으로 상륙을 기도하고 있으며, 서해안의 인천, 초도, 남포, 안주, 철산, 다사도가 그 대상지역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해안연선에 대한 전 인민적인 방위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¹²⁷⁾

8월 말-9월초 북한인민군은 이미 공격한계점에 도달하였고 군기와 결속력이 와해되어 갔다. 인민군은 남한영토의 90% 이상을 점령하긴 했지만 이미 사단 전투력이 50-60% 수준으로 약화되었고 병참선도 300km로 신장되어 공격력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었다. 이 때문에 김일

124) 러시아 국방부,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p. 51.

12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 외무상에게 보낸 전문, No. 981. 1950. 8. 29, 030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 p. 96.

126) 임은, 『북조선창설 주역이 쓴 김일성정전』(옥천문화사, 1989), pp. 224-225.

127) “후방을 튼튼히 보위하자 : 내무성, 민족보위성 책임간부들,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도 내무부장 협의회에서 한 연설, 1950. 8. 29,” 『김일성전집 12』, pp. 251-256.

성과 인민군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도 승리에 대해 의심했다. 김일성은 8월 29일 해안 경계를 강화할 것과 “인민군대 기피자와 대렬 도주자”의 비겁한 행동과 투항 변절을 막을 데 대한 대책을 지시하였다.¹²⁸⁾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김일성에게 위로가 된 것은 스탈린의 격려편지뿐이었다.¹²⁹⁾ 9월 초 이미 전선부대의 보급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고 인민군의 공격력이 정점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북한의 선전선동만 오히려 더욱 요란해 졌다. 김일성은 미군의 상륙이 임박한 가운데 부산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전투력이 열악한 인민군을 희망 없는 참화 속으로 밀어 넣었다. 김일성은 탄약을 보급해주지 못하면서 ‘공격’만 강조했다. 김일성은 9월 9일 “조국해방전쟁은 결정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를 반복하면서 공격과 기습을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다. 이것은 최후의 독전이었다.

6. 결 론

본 논문은 한국전쟁기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전략의 전술화’의 논리로 해석하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많은 전략가들이 지적하듯이 전쟁사령관이 전술적 사고에 집착하여 전쟁을 지도하면 전쟁에 실패하게 된다. ‘전술의 전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심각한 ‘전략수준의 부조화’ 현상은 전쟁계획 수립에서부터 전쟁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전쟁지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적인 부작

128) “후방을 튼튼히 보위하자: 내무성, 민족보위성 책임간부들,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도 내무부장 협의회에서 한 연설, 1950. 8. 29,” 『김일성전집 12』, p. 257.

129) “Ciphred Telegram, Stalin to Kim Il-sung Via Shtykov, 1950. 8. 28.”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korean-war-origins-1945-1950>
 (검색일: 2017. 9. 25.).

용은 현실전쟁에서 단순한 군사적 모험주의와 전쟁수행의 경직성으로 드러난다. 전략의 전술화로 인해 전술적 국면에 집착하여 전체전쟁 국면에 대한 안목이 상실되면 전쟁의 마찰에 대해 상상하지도 못하고 모든 전쟁계획은 현실전쟁에서도 실행될 거라는 사고로 편향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그러한 형태의 전쟁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클라우제비츠의 명제를 다시 한 번 입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전쟁의 승리가 결국에는 전략과 전술의 적합한 조화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김일성의 6.25전쟁 수행전략을 사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한국전쟁 전략은 김일성의 유격대 신화와 군사적 오만함의 결합, 그리고 속승에 대한 맹신이 빚어낸 ‘전술의 전략’으로 평가된다. 김일성은 자신의 전술적 경험을 국가적 수준의 전략으로 확장 적용하여 전투처럼 전쟁을 계획하고 수행하고자 했다. 그것은 속승에 대한 믿음으로 굳어졌다. 그 영향력은 전쟁계획에서는 희망적 사고에 기초한 모험주의적인 성향을 띠었으며, 전쟁수행에서 닥쳐올 많은 장애요소들, 즉 전쟁의 마찰을 충분히 고려하지도 못했다.

전술편향으로 수립된 군사전략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많은 환상을 가지게 했다. 그러한 이상적 가정에 기초한 김일성의 전쟁구상은 성급한 개전을 부추겼으며 단기속승에 대한 오만을 촉진시켰다. 김일성은 신속한 군사공격을 통해 불안정한 남한을 무너뜨리고 남한영토를 점령하는 데에 결정적인 장애요소는 없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 김일성의 속승에 대한 환상은 대담한 전격전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끝날 것 같던 김일성의 전쟁구상은 전쟁의 마찰에 의해 완전히 뒤집혔다. 본 논문은 희망적 사고에 기반한 전쟁계획과 실제 부딪혀야했던 현실전쟁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 ‘전쟁의 마찰’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찰을 계산하지 않은 북한의 전술 편향적 전쟁계획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김일성의 전쟁은 처음부터 ‘예비’를 계획하지 않았다. 북한은 미군개입과 인민봉기와 같은 핵심가정이 무

너질 경우에 대비한 우발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북한은 1950년 8월 이후 작전한계점에 봉착하여 낙동강 전선에 투입할 병력도 부족하였으며, 더군다나 인천지역으로 미군이 상륙작전을 준비한다는 첩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처할 만한 예비 병력의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예비 물자의 부족은 심각했다. 더욱 심각했던 것은 전쟁수행의 경직성이었다. 전략적 후퇴와 제한전과 같은 여러 가지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안목이 없었다. 속승주의의 환상에서 깨어난 것은 유엔군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행된 1950년 9월 15일에 가서이다. 그제야 김일성은 무모한 전격전의 폐해와 ‘전쟁예비’의 결여로 전쟁이 결코 자신의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해야 했다.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개전 이후 실제 전개되는 현실전쟁이 자신의 전쟁계획처럼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제대로 된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김일성은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 마찰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전술편향의 사고가 전쟁의 모험성과 도박성을 더욱 부추겼다.

북한의 6.25전쟁 전략에 나타난 ‘전략의 전술화’의 패착과 과오는 한 국가의 전쟁전략수립에 좋은 반면교사가 된다. 한 국가의 전략은 전쟁 목적에 부합된 하나의 목표를 전체 군사적 행동에 부여해야 하며, 전쟁의 본질적 속성인 정치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전략이 전술에 목적을 부여해야지 그 역작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전략과 전술이라는 서로 다른 수준의 용병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수준의 용병술이 각각의 수준에서 이탈하여 다른 수준에서 적용될 경우 전쟁수행은 기대하던 목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전쟁지도자의 전술 편향적 사고와 과도한 자기 성공체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전략수준에서도 적용가능하다는 지도자의 오만함은 전쟁전략 수립에서 경계해야 할 요소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과거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전쟁지도자의 자기능력과 방법론을 이상화하는 ‘휴브리스’는 전쟁 수행에서 위험을 초래한다. 그것은 군사적 수준에서는 지휘관들의 속승에 대한 맹신이 근거 없는 모험주의를 부추기고, 그럼으로써 전쟁계획과 수행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마찰에 대해 눈을 가리게 하는 오류를 발생시킨다. 이것으로, 왜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은 매우 단순하지만, 그 가장 단순한 것이 어렵다”고 말했는지 설명된다.

[원고투고일: 2017. 4. 25, 심사수정일: 2017. 11. 22, 게재확정일: 2017. 11. 23.]

주제어: 전략의 전술화, 김일성, 한국전쟁, 군사적 모험주의, 전격전, 전략의 전술, 희망적 사고, 전쟁의 마찰, 전략수준의 부조화, 전쟁수행의 경직성

〈참 고 문 헌〉

- 가미야 후지, 『조선전쟁』, 서울: 한반도 출판, 2004
- 권오근 책임편집, 『주보중문선』, 연변인민출판사, 1987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45-1960』,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군사관계사료집1:북한군 전투명령』, 서울: 군사편찬 연구소, 2001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 귄터 블루멘트리트 지음, 류제승 옮김, 『전략과 전술』, 서울: 한올아카데미, 1994
- 김일성, “현정세와 당면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김일성 선집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 김일성, “보천보 전투 30주년, 1968,” 『북괴 군사전략자료집』, 서울: 중앙정보부, 1974
-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일성, “1949년을 맞이하면서 전국 인민에게 보내는 신년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순간통신』 1월 상순호 (1949)
- 김일성, “서울시 해방에 즈음하여 전국인민들과 인민군대와 서울시민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1950. 6. 28,” 『김일성선집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김일성,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1983. 6. 30,” 『김일성저작선집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김철범, 『진실과 증언 : 40년 만에 밝혀진 한국전쟁의 진상』,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김주철, 『조선로동당 당원조직 연구: 1945-1960』, 서울: 선인, 2008
- 김학준, 『북한의 역사 : 제1권』,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 남시욱, 『6.25전쟁과 미국』, 서울: 청미디어, 2015
- 데이빗 쉰이, 『중국의 6.25전쟁 참전』,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
- 러시아 국방부,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서울:오비기획, 2002
- 류제승, 『전쟁론』, 서울: 책세상, 2008
- 모택동, “중국혁명전쟁의 전략문제,” 김정계 역, 『모택동의 군사전략』, 대구 : 중문, 1994
- 박갑동,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31화: 내가 아는 박헌영,” 『중앙일보』(1973. 8. 23).
- 박병엽, 『전 노동당 고위간부가 겪은 건국비화 :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탄생』, 서울: 선인, 2010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25』,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1989
- 션즈화, “극동에서 소련의 전략적 이익보장: 한국전쟁의 기원과 스탈린의 정책결정 동기,”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2014): 1-44, <http://doi.org/10.17331/kwp.2014.30.2.001>
-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바,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서울: 열림, 1997
- 오영진, 『하나의 증언: 소련군정하의 북한』, 부산: 중앙문화사, 1952
- 온창일, 『한민족전쟁사』, 서울: 집문당, 2008
- 우병국 외, 『북한체제 형성과 발전과정 문헌자료: 중국, 미국, 일본』, 서울: 선인, 2006

- 윤석철, 『경영학의 진리체계』, 서울: 경문사, 2002
- 이서항, “유엔과 한국전쟁의 휴전과정”, 강성학 편, 『유엔과 한국전쟁』, 서울: 리북, 2004
- 임은, 『북조선창설 주역이 쓴 김일성정전』, 옥천문화사, 1989
- 장준익, 『북한 인민군대사』, 서울: 한국발전연구원, 1991.
- 정병준, “북한의 한국전쟁 계획수립과 소련의 역할,” 『역사와 현실』 제66호(2007): 363-398,
<http://uci.or.kr/G704-000054.2007..66.011>
- 정현수 외, 『중국조선족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서울: 선인, 2006
- 조한범 외, 『구술로 본 북한현대사 재인식 : 김남식, 이항구』(서울: 선인, 2006), p. 92.
-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서울: 고려원, 1990
- 최장집, “해방8년사의 총체적 인식,” 최장집 저, 『해방전후사의 인식4』, 서울: 한길사, 1989
- 한재덕, “김일성장군 개선기,” 『북한관계사료집7』,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1
-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 서울: 합참, 1984
- 허남성·이종판 역, 『한국전쟁의 진실: 기원, 과정, 종결』, 서울 :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2000
- Andre Beafre, trans. by. R. H. Barry, *An Introduction to Strateg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5).
- Andrew Krepinevich, *The Army and Vietnam*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 Archer Jones, *Elements of Military Strategy: An Historical Approach* (Westport: Praeger Publishers, 1996).

- Carl von Clausewitz, Edited and Translated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On War*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 Colin S. Gray, *Modern Strate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Colin S. Gray, “Irregular enemies at the essence of strategy: Can the American way of war adapt?,”(접속날짜 2017년 9월 1일)
<http://www.strategicstudiesinstitute.army.mil/pubs/display.cfm?pubid=650>
- David Ronfeldt, *Beware the Hubris–Nemesis Complex: A Concept for Leadership Analysis* (RAND, 1994).
- Edward N. Luttwak, *Strategy: The Logic of War and Peace*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 James Person, *New Evidence on the Korean War* (Washington D. C.: Woodrow Wilson Center, 2010).
- Kyril Kalinov, “How Russia Built The North Korean Army,” *The Reporter* (September 26, 1950).
- Liddell Hart B. H., *Strategy* (New Frederick A. Praeger, 1967).
- Michael I. Handel, *Masters of War: Classical Strategic Thought* (London, Portland: Frank Cass, 2001).
- Michael I. Handel, “The Evolution of Israeli Strategy: The Psychology of Insurgency and the quest for absolute security,” Williamson Murray, MacGregor Know and Alvin Bernstein, Eds., *The Making of Strategy: Rulers, States and War* (The Press Syndicate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1994).

Peng Guanqian, *The Science of Military Strategy* (Beijing: Military Science Publishing House, 2005).

Richard K., Betts, “Is Strategy an Illus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25, No. 2 (Autumn, 2000).

Samuel P. Huntington, “Guerrilla Warfare: Theory and Policy,” Franklin Mark Osanka, *Modern Guerrilla Warfare: Fighting Communist Guerrilla Movements 1941–1961* (The Free Press of Glencoe, 1962).

Yehoshafat Harkabi, *Israel's Fateful Decision* (London: I. B. Tauris and Company Ltd., 1988).

“Memorandum from the soviet ambassador to the DPRK to the chairman of the USSR council of ministers with a brief description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in the south and north of Korea, 1949. 9. 15.” (접속날짜 2017년 9월 25일),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korean-war-origins-1945-1950>

“Politburo Decision to Confirm the following Directive to the Soviet Ambassador in Korea, 1949. 9. 24.” (접속날짜 2017년 9월 25일),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korean-war-origins-1945-1950>

“Telegram from Roshin to Cde. Filipov(Stalin), 1950. 5. 14.” (접속날짜 2017년 9월 25일),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korean-war-origins-1945-1950>

“Telegram from Shtykov to Vyshinski Regarding Meeting with Kim Il-sung, 1950. 5. 12.”(접속날짜 2017년 9월 25일),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korean-war-origins-1945-1950>

- “Telegram from Roshin to Cde. Filipov(Stalin), 1950. 5. 14”
 (접속날짜 2017년 9월 25일),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korean-war-origins-1945-1950>.
- “From Shtykov to Vyshinski, 1950. 5. 30.” (접속날짜 2017년 9월 25일),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korean-war-origins-1945-1950>
- “Top Secret on Military Situation by Shtykov to Comrade Zakhrov, 1950. 6. 26.”(접속날짜 2017년 9월 25일),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korean-war-origins-1945-1950>
- “Memorandum on the Political Situation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Military Operation, 1950. 8. 11.” (접속날짜 2017년 9월 25일),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korean-war-origins-1945-1950>
- “Telegram from Shtykov to Stalin, 1950. 7. 6.” (접속날짜: 2017. 9. 25.),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korean-war-origins-1945-1950>
- “Ciphered Telegram, Shtykov to Stalin, transmitting Letter from Kim Ilsung to Stalin, 1950. 7. 8.” (접속날짜 2017년 9월 25일),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korean-war-origins-1945-1950>
- “Ciphered Telegram, Stalin to Kim Ilsung Via Shtykov, 1950. 8. 28.” (접속날짜: 2017년 9월 25일),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korean-war-origins-1945-1950>

〈Abstract〉

The analysis of Kim Ilsung's Strategy during Korean War: The Tendency of Turning Strategy into Tactics

Kim, Tae-Hyu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dynamics of 'Strategy of Tactics', based on a case study of Kim Ilsung's strategy during Korean War, especially the period from June to September 1950. The strategy of tactics can explain why Kim Ilsung as a supreme war commander of north Korean Army conducted the Korean War like a battle rather than war without any consideration or calculation on the possible 'friction of war'(conceptualized by Carl von Clausewitz). This research argues that a discord or a mismatch in the level of war defined in the 'strategy - operational art - tactics' hierarchical system facilitated the military adventurism and rigidity of strategy, which ultimately contributed to expand a crack and friction between ideal war(merely war planning) and real war(conduct of war). This basic conceptual framework defined as 'tacticization of strategy' illustrates a phenomenon that a lower level of war strategy(tactics) dominates the logic of higher level of strategy, possibly compared with a paradoxical situation such as 'the tail wags the dog'. This article argues that Kim Ilsung's tactics-oriented way of thinking, misinterpreting the whole war as a battle or combat rather than as a 'war itself', was an critical factor which motivated him an adventuristic initiation of war, and caused an unexpected friction and catastrophic mistakes and failure in the conduct of the initial offensive phase of Korean War from June to September 1950.

This explanatory concept of 'tacticization of strategy' or 'strategy of tactics' can explain why Kim Ilsung miscalculated the war prospect based on a wishful thinking such as a blitzkrieg-victory illusion. This was a decisive mistake he made during war decision making process, which forced

him not to assess and decide in a strategic sense during conduct of war as well. He overestimated the impact of blitzkrieg. He believed once north Korean army occupied south Korean Capital within a short perio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ould collapse and then he could rule all the territory in the southern part of Korean Peninsula. This illusion of blitzkrieg before and during war made his war as a simple combat or battle at a tactical level. As long as he regarded his war as a 'mere combat, there was no reason to take into account the frictions of war for him. He never doubted the victory of his army. Kim IIsung's misunderstanding of war, defined as a tacticization of strategy in this article, resulted in a fatal catastrophe for him.

Key Words: tacticization of strategy, Kim IIsung, Korean War, military adventurism, Blitzkrieg, Strategy of Tactics, The Tail wags the Dog, Wishful Thinking, Friction of War, discord of war

